

第 36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 '94. 3. 23 ~ 3. 2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THE UNIVERSITY OF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목 차

1.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3
2.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
3.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4.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51
5. 부 록	
가) 의사일정(안).....	125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4년 3월 23일 (수요일) 11시 30분

## 개 회 식 순 (제36회 임시회 개회식)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의장)
4. 폐식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11시 3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36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  
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  
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  
니다.

개 회 사

● 의장 김영세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정인  
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언론계 인사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94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본도 교육위원회 제36회 임  
시회가 개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교육감께서 '94년도  
시책연설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창의·도덕  
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이란 목표  
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부적인  
본도 교육행정의 추진계획과 그 문제  
점이 적시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  
책질의를 통하여 교육위원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  
다.

그리하여 각급 일선학교가 자율과  
책임의 새로운 교육풍토위에 활기찬  
제 모습을 찾고 미래를 지향하는 우  
리 교육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  
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앞장서서 대비하며 아직  
도 침체된 지방교육을 전반적으로 쇠  
신시켜 그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가 타시도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인적·물적요소를 개선하여 학생들  
의 소질과 능력의 개별화와 다양한  
학력신장이 도모되며 그 수월성이 제  
고되는 활기찬 본도 교육행정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학교  
교육은 무엇보다도 그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하고 한국인이 국제무대의 각  
종 경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로 관철시켜  
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통하여 존경하  
는 교육위원 여러분께서는 본도 교  
육행정의 전반적 문제를 파헤쳐주시  
고 도민의 교육 의사가 집행청부터  
학교 현장까지 굴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집행청의  
관계관계서도 질의를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본도 교육의 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룩하여 학  
교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껏 힘  
써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장의 안일한 자세와 학사운영때문에  
교사들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정상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신성적과 보충수업에 수반된 각종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실기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특히 금학년부터 대입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행동발달 및 특별활동의 공정한 평가는 학교 현장의 어려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95학년 대입에는 47개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발전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불식하고 학교교육의 정상적 발전과 교육력 향상에 획기적 개선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선진 충북교육의 도약을 위한 일선학교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본도의 학사행정과 학교교육의 모습이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타 시·도의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질의와 답변 속에 본도 교육발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금학년도의 교육추진 실적에 우리 교육사에 큰 도약의 한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1시 37분 폐식)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4년 3월 23일 (수요일) 11시 38분

## 의 사 일 정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38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에 따라 새로 발령된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

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정인영

94학년도 초를 맞이해서 교육위원회가 개최된 데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방금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신대로 21세기를 앞장서서 대비하며 충북교육을 전반

적으로 쇄신시켜 타 시·도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소질과 능력의 개별화와 다양한 학력 신장이 도모되며, 그 수월성이 제고되는 활기찬 교육행정이 추진되도록 우리 집행청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새 학년초를 맞이해서 다짐을 드리면서 3월 1일자로 이동된 과장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철진 중등장학과장이 직무대리로 있다가 정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오늘 충주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장 박용두장학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나와서 인사)  
60세입니다.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그 동안에 여러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교육연구원이나 과학기술과에서 전문직을 역임을 했고, 과학교육원에

연구관으로도 있었고, 또 괴산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3월 1일자로 과학기술과장으로 전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용 사회교육체육과장도 직무대리로 있다가 정식으로 과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나와서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정인영 교육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4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병해 교육위원 외 3인위원으로부터 3월 14일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5일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4-4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제34회 임시회시 의결하여 도의회에 제출되었던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월 26일 제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3월 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하실 사항은 3월 19일 김광수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는 청주관내 신설 학교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39분)

###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43분)

###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광수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제36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인 1994년 3

24일 10시 30분 및 제3차 본회의 때  
인 25일 10시 30분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부교육감, 그리고 초  
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 대로 의결하여주시  
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  
석요구의 건은 제안 된 바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4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  
고자 합니다.

홍신희, 권혁풍 두분 위원을 선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홍신희, 권혁풍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에는 청주 관내에서 새로  
개교된 신설학교를 방문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여주  
시기 바라며,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  
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  
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4년 3월 24일 (목요일) 10시 42분

의 사 일 정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42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1. 경과보고

(10시 43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3월 2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교육행정 전반에 관  
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44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질문 순서는 아직 도착이

안되신 분을 뒤로 미루고 현재 참석하신 분서부터 좌석순에 의해서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진을 상정합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개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일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 내신성적 조작문제와 재단의 비리때문에 사회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이렇게까지 썩었느냐하는 시민들의 질타에 그저 부끄럽고, 숨을 곳이 있으면 숨고싶은 심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뒤늦게 전국 52개 고교에 특별감사에 착수하였고, 우리 충북에서도 충북고, 충추고, 청석고

등 3개 고등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실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내에 많은 인문계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충북고, 충추고, 청석고를 지정하여 감사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신성적이 대학진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되는 만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내신성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도 내신성적에 정확한 산출과 관리에 대하여 몇 차례 관심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내신성적에 정확하고도 공정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장학지도를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로 성적처리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데 컴퓨터 담당교사만에 의한 성적처리에 허점은 없는지, 또 컴퓨터 평가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장학사의 업무과중으로



일선 학교 장학지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일선 교사는 장학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교감의 교내장학지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마련이 돼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학력수준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 알려주시고 학력신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모색이 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내 인문계고등학교 어학실습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서

는 어학실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어학실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어학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교사 사기진작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1월달에 청주와 충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금년을 '신뢰받는 교육의 해'로 정하고 학교 운영의 쇄신과 잔존부조리 일소,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으로 발전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보수문제, 인사행정문제, 혼·포장수상자 선정문제, 네번째로 과다한 교원의 업무경감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강구되고 있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는 도교육청에서는 여러가지 장학지도 자료를 발간해서 일선학교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덕성교육 지도 자료로서 충북의 선비정신이 배포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았더니 참으로 좋은 지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배포는 하는데, 이 자료가 과연 얼마나 학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충북의 선비정신에 나타난 충의라든지 정의·신의정신만 잘 지도가 된다면 학교교육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잘 활용되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 3년째에 이번처럼 박달재를 참 무겁게 넘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12월달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수안보에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참 법이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되도록 우리는 집행청을 좀 도와주는 데 힘을 모으자 모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집행청을 도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그 동안에 되도록 이면 도와주자 하는데 신경을 썼었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에 제천 광산공고와 단양공고 기숙사 현황을 시찰을 하고 그 개선점·문제점이 없겠느냐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시회 오기전에 며칠 전 광산공고로 가서 그 동안에 어떤 조치를 내렸나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뭐 당연히 교육위원이 심방을 하면은 집행청에서 답방(答訪) 형식은 좀 취해줬어야 그 하나의 예우를 갖춰주는

걸텐데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  
다.

또 단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단양공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하니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개선점이 없겠느냐, 도와줄게 없겠느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상태였었는데 며칠 전엔 또 이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하고 관계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먼저 임시회에서 우리 의장님이 이 답변은 임시회의 석상에서 답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답변서를 준비를 했으면서도 이걸 왜 서면으로 하자고 하는지 그 저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리담당관하고 과학기술과장님은 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내일 말씀을 해주시고 추가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편은 기숙사운영은 지방 공무원 정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보건직이 7급이 하나고 수용인원 40명마다 한명씩 기능직, 즉 위생원이 배치된다고 이렇게 규정에 돼있는데, 지금 3월달 그 통계에 의하면 제천에 광산공고가 129명, 단양공고가 149명입니다.

40명씩 자르면 다 셋아니면 네명씩을 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산공고는 선생님들 숫자가 많고, 또 배구선수다 또 이 시설면이 상당히 단양공고보다 노후됐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준다면 광산공고를 더 뒀어야지 단양공고를 더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다녀온 그 뒤로 조치사항이 광산공고는 129명인데 세 사람이었다가 하나를 줄여가지고 두 사람이고, 단양공고는 네사람이 거기 돼있다 이겁니다.

40명씩 이렇게 그 근무관리지침에 내었는데, 행정관리담당관은 어떤 사유로 광산공고는 2명이고 단양공고는

4명을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분담을 했는지 그걸 내일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과기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것은 단양공고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전화로 "되도록이면 수억원 들여가지고 기숙사를 만들어 봤는데 굳이 기숙사에 입소한 사람만 혜택을 볼 필요가 있느냐, 조금만 보완조치를 하면 많은 사람이 점심혜택이라도 볼 것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단양공고 교장선생님 답변이 "정원이 173명인데 정원보다 초과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면치못한다." 이거예요 대답이.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봉사하고 노력할 이런 것보다도 "173명 괜히 정원보다 넘게 해가지고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 문책만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기과장님께서서는 이 단양공고이외에도 농고라든지 이런데 기숙사가 많은데 앞으로 기숙사에서 최대한 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일 아주 좀 답변해 주시기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격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심정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3월 1일자 교장선생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묘하게 교장선생님들 인사가 발표되면 날이 구정으로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웃놀이 한참 할때 재천지역에는 묘한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든다면 이번에 백운중학교 교장이 재천중학교 교장으로 아주 전보돼서 사실상은 대영전입니다.

그 교장선생님한테 "아 영전 축하합니다."하면 교장선생님 답변이 "저는 '빠꾸도' 했습니다." 이겁니다.

웃놀이 하는 '빠꾸도', 박달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주보다 더 멀리 간 것을 '빠꾸도'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재천 봉남국민학교가 교장 승진 6개월만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 이 양반이 면장하고, 면소재

지도 아니고 그 아주 봉남 그 쪼만 동네에 있다가 송학국민학교로 대영전이 됐습니다.

아주 영전여.

"영전 축하합니다." 하면 또 역시 '빠꾸도' 라는 애깁니다.

이렇게 인제 신생용어가 그 지역에 선 유행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 인사 이동에서 제천 군의원들한테 많은 제가 공격을 받았습니니다.

특히 제천 한수면하고 제천 봉양면 군의원의 얘기가 "어떻게 교육자치가 되기 이전보다 교육자치 이후에 교장 이동이 더 잦으냐?" 제가 작년 사무 감사에 "제천단양에 교장선생님들 승진발령 받으면 그래도 한 3년 동안은 제셔야 족적(足迹)이 남겨질 게 아닙니까?"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 한수중학교 이걸 가지고 교장 인사이동 관계를 대충 뽑아보니까, 82년도에서는 이승국 교장이 3년6개월을 근무를 했고, 86년에서 88년까지는 한행식 교장이 2년6개월만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90년 와가지고는 이재일 교장선생님이 1년7개월만에 제천농교로 그 다음에 윤병희 교장이 1년5개월만에 그 제천동중으로 그 다음에 강대식교장이 1년 6개월만에 정년퇴임, 그 다음에 최근 지난 3월1일은 강근식교장이 1년만에 괴산중학교로 전보가 됐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가장 적은 학교가 한수중학교고 한수중학교는 티오(T.O.)상 교감도 없는 학교입니다.

아무리 적은 학생들이 있다손치더라도, 이 학교의 교장을 이렇게 자주 바꾼다는 것은 집행청의 문제가 좀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봉양중학교에도 뭐 충주 중앙중학교의 영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다보면 어렵지만 한 학교에서 적어도 2년 내지 3년은 좀 근무를 해주셔야 그 학교 학생들이 좀 제대로 자리가 잡혀갈게 아니냐, 또 제천·단양지역에서 3,4년 근무한 사람도 못가는데, 1년 근무한 사람이 가면은 기존의 많이 근무했던 교장선생님들이 사기가 저

하가 되고, 사기가 저하되면은 많은 학생들한테 1년동안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인사에는 적극 참고로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도 이 지방의 원들도 인제 소리를 내가면서 교육위원회한테 항의할때 어떤 답변자료가 궁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은 충청북도교육의 총수입니다.

교육감님이 일선 시군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를 방문해서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는 이게 그 대로 이행이 되도록 참모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참 작년에 한 제가 아는 두어건은 이상하게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고등학교에 작년에 일반 그 부형이 3천만원 상당하는 급식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래 제가 쫓아와서 관리국장하고

교육감님실에 들어가서 "자동세척기를 하나 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가를 잘 몰라가지고 "돈 천만원이면 살 겁니다."하고 관리국장님과 같이 교육감님에게 돈 천만원 양해를 얻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쾌히 해주시겠다고 승낙이 났는데, 그 다음에 제천고등학교 교장과 인근 학교 그 세척기 사온델 가보니까 천오백만원 가져야 사지 천만원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육감이 제천고등학교 심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제천교육장과 교장이 교육감에게 사정을 해서 "천오백 세척기를 사주십시오"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교육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아주 한걸음에 뛰어가지고 "교육감님 감사합니다."하고 제천고등학교 학부형들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저 PR하라고 "교육감님이 천오백만원짜리 세척기를 약속을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교

장선생님한테 연락오기를 "오백만원이 타절이 됐습니다."하는 애깁니다.

또 하나는 제천 그 순회시 교육장이 부탁을 해서 "중앙국민학교에 신설학교 교재구입비 또는 열심히 하는 의림여중·남천학교에 한 천만원씩 교재교구를 좀 사주십시오."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교육감이 또 쾌히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회의때 또는 다른 사람들 모일 때마다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감님에게 부탁을 해서 교육감 재량사업비에서 3천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얻었습니다. 박수를 칩시다."

박수를 몇번을 쳤는지 몰라.

그런데 연말가서는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육감이 순방할 때 관계 그 참모가 같이 동행하면서 설령 그게 잘못됐으면, 그 다음날 참모회의에서 바로 일선 시정조치를 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돈 떨어져서 안된다 하는 것은 좀 금년에는 이런 건

없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번째 학교급식, 학교의 급식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제 96년도까지는 국민학교에 뭐 전원 확대급식을 실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받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산출하는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급식학교는 꼭 농협에서 쌀을 구입하도록 돼있는데 농협에서 파는 쌀이 한 2년 묵은 값싼 재고쌀과 당년의 걸 파는 청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당년의 그 좋은 청결미를 쓰지 않고, 몇년 묵은 그런 재고쌀을 지금 값싸게 구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인제 그 UR 그 정책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쌀이 들어오고, 지금도 서울에선 일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쌀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몇년씩 묵었던 쌀로 밥해준 거 하고 참 외국의 어떤 쌀하

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미질이 좋다고, 좋다는 것이 납득이 갈거나,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소비자, 이 수익자 부담이라면 조금 더 걸더라도 청결미로 좀 급식지도를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결미를 좀 공급을 해주는 걸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여기에 뭐 이상일위원님도 잠깐 그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 포상관계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신경들을 곤두서고, 또 승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인재 문제는 교원대 석사과정은 특별히 그 우대를 받는덴데 2년 동안의 그 학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 선발 그 과정은 어떻게 장단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그 계획이 서 있으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하나 먼저번에 그 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뭐 대학교 입학 합격수를 가지

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분명히 대외비로 얘기했으면 대외비가 돼야 되는데, 이 보시다시피 '대학진학실적 고무줄보고' 이런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이 사실대로라면 허위보고한 그 관계기관을 엄중문책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신문이 오보라면은 이게 교육청에서 신문사에게 이 사과광고를 좀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 잘못된 거라면은 좀 신문사에 시정조치를 하든지 이게 사실이라면 참 엄중문책을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뭐 석차를 매기는게 교육의 효과이거보다도 좌우간 이게 우선하는 문제로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소소한 거지만 지방의 여론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전에는 퇴직교원의 그 위로 잔치를 교육감님이 순회를 하셔서 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도내 퇴직 공무원을 가화장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위로잔치를 해줬는데, 특히 제천, 단양같은데는 원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제천, 단양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새벽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잔치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또 한다면 며칠뒤에 혼포장을 주는 날이 있는데 혼포장 주는 날 같이 겸해서 행사를 하면은 더욱 출장비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감이 되고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옛날처럼 그것도 교육감님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여론이기 때문에 한번 의향을 여쭙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공고가 전체 도민들의 그 관심사속에서 금년에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내년에 계획대로 개학이 될 거냐, 궁금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충북공고의 그 진행사항도 좀 발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격한 음성으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음에는 김광수위원 차례인데 지금 교통형편으로 채 도착이 안됐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김사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김사수 교육위원입니다.

이때끔 아마 그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그 시책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들 있곤 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도 이때끔 질문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오늘 유치원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취학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뭐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사설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사실이 그런 문제점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한 두어군대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다녀서 그 원장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과연 문제점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첫째 그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청주시내 사립유치원이 한 58개가 있다고 해요, 유치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오바되고 정원이 찬데는 열 대여섯 군데고 나머지 한 30여군데는 정원이 전혀 차질 않았어요.

않아서, 미달된 거죠.

해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폐원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그 아마 유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원인이 어딴느냐 이거 생

각해 볼 적에 이 시설의 평준화가 이 사립유치원은 안되겠지만 시설 좋은 데로는 뭐 다 몰리고, 참 그야말로 뭐 선착순으로 한다니까 밤을 새워서 거기 지켰다가 하는 그런 예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말하자면 시설의 격차에 의해서 미달되는 유치원이나 또는 정원이 오바되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우리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그야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돈있는 사람 얼마든지 내고 다녀도 좋고 시설좋은데 선택해 가는 걸 이걸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뭔가 이게 정책적으로나 뭐 이것이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유치원 원장은 금년에 처음 그러한 기현상이 났다고해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서 유치원교육이 이왕 인가를 맡아서 허가 맡아가지고 개원을 했으면은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설립목적대로 수업을 유치

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얘기한 시설평준화의 격차에 의한 사유보다도 또 다른 그 뭐 특별한 사유가 또 이렇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이 교육과정운영에 좀 알아봤더니, 역시 유치원교육의 본질은 건전한 놀이교육을 통해서 착한 어린이의 심성을 기르는데 있다고 보는데, 아마 어느 유치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식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영어를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는 심지어 한자교육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이 산수같은 것도 두자리의 인제 더하기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원 애들한테는 과중한 그러한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유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장학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본연의 유치원의 본질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장학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93년도에 유치원장학지도실적과 또 청주 아마 시의 어려우시더라도 청주시에서 유치원이 제일 많고 해서 청주시에서 93년도의 유치원의 장학지도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 또 결과 처리는 중요한 그 결과 처리는 어떻게 했나하는 것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엔 이 공과금, 공납금 문제인데 이걸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또 역시 이 공과금관계때문에 사회적인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거의 10만원 가까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도액은 얼마나?" 물어 봤더니 징수한도액은 구구해요.

그저 6만 뭐 2천7백원까지 그 단수 같이 나오는 그 한도액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는 한 4만 얼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어찌 징수한도액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이걸 산정하기

때문에 징수한도액이 이렇게 구구하  
나, 또 그 징수한도액을 설정한 그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잘 알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한도액을 설정한 그  
기준과 또 그 한도액이 대개 얼마나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제가 그 잘 아는 유치원이 있고 그  
래서 너희들 그럼 실제로다 소요예산  
이 얼마가져야지만 정말로 하나 유치  
원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2학급짜리 하고 5학급짜  
리 하고 35명 기준의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더니 2학급 35명 하는 데는  
한달에 11만8,000원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또 5학급은 10만9,000원  
그래서 평균해서 4학급 기준에 11만  
한3천원 정도는 가져야, 이게 있어야  
그래도 그냥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적정하고 참 이  
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수증이 갖  
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차량운영비라  
든지 기타 급식비라든지 점심값이 포  
함되지 않은 금액인데, 뭐 여기서 절  
약하라면 어느 정도 인제 그 조정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시다마는, 이  
유치원의 그 징수 말하자면 수업료라  
고 할까 그 요인이 많이 받아야 될  
요인이 어디있나하고 생각해 보면 이  
수업시간을 대개 인제 유치원이라는  
것이 아마 서너시간 정도 수업을 하  
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  
느냐면 오후까지, 세시까지 연장해서  
거의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  
용 말하자면 연료비도 더 들어갈테고  
기타 그 비용이 아마 더 들어갈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 차량운명을  
해야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애길 들어보니 안 할  
수도 없겠어요.

청주시내 전역에 걸쳐가지고서 학  
생이 분포돼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량운행을 꼭 해야 되는 그 불가피  
성이 있어서, 이런 그 요인때문에 이

유치원의 이 공납금은 참 징수하기가  
측정하기가 대단히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이렇고 또 저기  
하다면 적정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  
고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공납금  
을 현실화해주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 한도액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액산출해서  
이거를 결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  
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도액을 정말로 필요한 건지 수혜  
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도액이 필요  
한 건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한도액을 현실  
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않겠느냐는 생  
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정원문제, 교육내용문제, 또  
이 공납금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고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장들이 인제 건의  
를 하는게 있어요.

있어서 들어봤더니 역시 유치원도  
"공문서접수가 많다 해서 그 처리하  
는데, 업무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공문서를 어떻게 좀  
줄여달라"하는 얘기가 있고 또한 "그  
차량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대  
책을 세워달라", "그래 무슨 대책이  
있느냐?"하니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유치원도 학구제를 하면 어떠냐"하는  
이런 의견도 원장들이 하는 분이 계  
셨고, 또한 다같이 "다른 외국에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을 좀 줘서 유아교육도 중요하니까  
국고보조금을 줘서 좀 더 충실하게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어떠냐"하는 그러한 건의도 있다  
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질문요지 낸 데에  
는 국민학교의 유치원 부설한 그 유  
치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를 했는데 사립유치원까지 전반  
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병설유치원도 청주시내의 실정  
을 알아봤더니 청주시내에 이 병설유  
치원에 지금 정말로 취원자가 많고  
해가지고 심지를 뽑아야 되는 이러한  
그 병설유치원이 몇군데 있다는 얘기  
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 병설유치원에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도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사립유원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장학지도도 하고 또한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유치원이 본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에 이 학교운영평가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이 학교운영평가제가 작년서부터 실시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또 인사에 반영도 하고 또한 기타 학교운영에 아마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제도이고, 또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면은 뭔가 이런 평가제를 뒤편 자극을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학교장중심제로 학교를 운영해라 또는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해라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참 그야말로 규격화된 평가방법으로 의해서 이것을 평가를 할 적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가 있겠느냐, 또 학교에서는 참 그야말로 부담과 압력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건지 또 한다면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이걸 평가를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한 또 그 평가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시나, 어느 부분까지 이걸 처리를 해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그 결과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적인 효과, 이런 걸 하는 것이 참 교육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수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좀 더 이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일선 교장이나 선생님이 부담과 그런 압력을 받지 않고, 과연 이 평가제가 잘 됐구나 하는, 수공할 수 있는 이런 평가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김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 질문하시죠

● 박병해 위원

본도 교육청 여러분들 수고많이 하  
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하  
는 내용은 대부분 보다 잘하고자 하  
는 뜻에서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금번 그 수능고사 결과처리 이것을  
보면은 원래 목적인 그 글자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테스트하  
는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이번 대학  
에서는 그 점수 그대로 갖다 붙여가  
지고 옛날에 시험봐서 그 점수 그대  
도 붙이는 거하고 하등 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수능고사에 대  
비한 우리 도의 각 교과지도는 현행  
대로 해도 좋은가, 또 그 위배된 결  
과처리에 대한 어떤 대책은 뭐가 있  
는 것인가 이거를 질문말씀드리고,  
둘째번에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특  
정한 어떤 종교를 강요하고 있는 현

실을 여기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것을 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신입생들의 서약서에는  
아주 그 교를 믿을 수 있도록 강요한  
이런 거를 그 강징하는 이런 것이 있  
고, 또 그 해당시간에는 전원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  
나라의 법상으로 봐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  
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번에는 '충북교육바  
로세우기'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는 어떤 부분에 이게 돼있는  
건지 몰라도 이게 공인된 어떤 문제  
제기할 만한 이런 그 단체인가, 이게  
궁금하고, 그러나 이들이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각급학교 교장들이 교  
내장학이 전혀 없는 탓으로해서 교육  
의 질 저하는 물론 교직원들의 그 태  
만한 태도 이런 걸로 해서 찍 우려된  
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 이 단체는 뭔지 몰라도 이 내  
용으로 봐서는 저도 아주 이거 평소  
에 생각하는 아주 동감된 이런 내용

으로 봐서 우리 도에 각급 학교교장들의 장학이 현실로 어떻게 돼있는 것이냐, 때로는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교안도 안만들고 결재도 안받고 뭐 이런 식으로 왜간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월반제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치제가 된 이 마당에 본도에서는 본도 교육청의 방침은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유급제, 능력별반편성 이런 문제같은 것도 본도에서는 기본 방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능력별 반편성, 유급제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옛날의 어떤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걸로 저도 아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번에는 정부에서는 강력추진중인 그 생활개선10대과제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전국민의

의식개혁 뭐 이런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계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걸 궁금해서 설명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계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국민감하게 교육과정에다가 받아들여서 사회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육성,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교육과정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불법·부정 뭐 이런 거를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층 더 이런 데는 강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본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번에는 국제경쟁력강화, 개방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상당한 내용을 충실히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강력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한 경제산업체 등 이런데 그 국운을 걸고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도 교육계획에 보면 더군다나 본도의 장기계획 그 내용을 보면은 정부보다는 훨씬 앞서서 선각적으로 이거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딱 다행한 일이고, 본도교육을 관계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은 차원이 다른 어떤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교육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계획, 추진내용 이런 걸 좀 듣고자 합니다.

본도에서는 내용의 일환으로 보면은 과학관 건립이라든가 지금 한창 말씀들리는 그 학교운영경영 그런 내용의 평가문제라든가 또는 유치원같은 것도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그 유치원같은 것도 문화수준에 알맞는 유치원 건물을 짓고자하는 뭐 이런 내용도 조금은 듣고 있고, 뭐 이런 걸로 보면은 타도보다는 월등하게 앞

서가고 획기적인 어떤 처사라고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볼 때 정부에서 국제경쟁력강화에 개방화 이 백방으로 역설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적어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런 문제는 우리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선 의식개혁에 관한 인간교육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내용을 충실히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관행 대상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도도 역시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하다고 보겠는데 아주 감각이 둔해져버린 옛날 관행, 타성에 붙은 어떤 옛날 관행, 이런 거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제도개선, 이런 문제 정말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좋은 제도개선이 됐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곱번째가 그게 없는데 원래는 그 네번째로 돼 있던 것이 그 빠졌어요.

그래 빠진 거를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이게 빠

졌다고 하는 애긴데 본도의 장기계획 보면은 페이지 17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회교육차원이라든가 그리고 이 특별활동교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개방화라고 하는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는 참 요새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꼭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 추진내용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그 실적이 없는 그 이유는 뭔가 이거를 물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의 모든 인적·물적 이런 자원을 학부모들이나 일반 사회인사들한테 완전히 개방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뭔가 학교에 와서 배우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내용, 또 반대로 사회인사들한테 기능을 가진 사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교육에 공헌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이거는 십이분 활용을 해서 교육에

공헌케 할 때 교육목표 달성에 일익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교육 학교개방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있습니다.

그래 요즘 국가에서도 부르짖고 있는 문제가 훨씬 앞서서 우리 도에서는 이게 계획도 했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얼마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개방화문제에서 교육충실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문제라고 봐서 이 내용을 질문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박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풍위원님 질문하시죠.

● 권혁풍 위원

권혁풍입니다.

제가 6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박병해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학교의 개방과 관련이 깊은 애깁니다.

제가 늘 기회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리는 애긴데 교육자치라고 하면은

학교자치가 돼야된다, 이 일선 교육 행정기관의 자치는 물론이려니와 교육자치가 완성이 되려면 학교자치가 돼야 될텐데, 학교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박병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완전히 지역사회에 개방이 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 교육의 주체, 즉 지역사회의 인사, 자원인사 모든 그리고 그 학교의 주인은 주민이 되는 이런 주민자치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사회학교라는 이론이 참 흔히 퍼져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학교가 완전히 실현이 될 때 교육자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은 이 교육내용이 무슨 교과서, 참고서, 혹은 교사용지도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모든 문제점들이 다 그 교육에 토픽(Topic)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사방이 벽으로 갈려 있는 이러한 교실이 아니라 좀 더 넓

게 그 지역사회 전체가 교실이 되는 이러한 학교 이게 바로 교육자치가 되는 그런 완성단계가 아니냐,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학교교육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종종 보도에 납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얼마큼 조직이 되어있으며 어떻게 그 운영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는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교장을 정점으로 해서 교사, 또 학부형, 동창생, 주민대표 이렇게 다양한 지역인사들이 모여서 그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협의와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그 협의체라고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만 활동이 된다면 교육자치가 그야말로 꽃을 피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좋은 사례로서 뭐 완벽한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며칠전에 음성군에 있는 오선국민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와 보십시오." 그래 가봤더니 그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학교 자체로.

동창생들이 그 자기 후배들, 어린 후배들이 학교통학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스쿨버스를 15인승을 하나 사서 순전히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동창들 스스로 발기를 해서 돈을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거둬서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하는 운영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우선 사놓고서 기증식을 하면서 저를 불러서 저도 가서 참 여러가지로 고마운 인사를 드렸습시다마는 그 좋은 사례가 오선국민학교의 그런 사례가 아니냐, 참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닙니다

자기 후배들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 자율적으로 이걸 돈을 거둬서 했다는 것, 이러한 그 예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조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첫째 묻고,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번째는 역시 매스컴의 많은 지적

을 받고 있는 얘깁니다.

한자 교육입니다.

과연 한자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물론 한자교육을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자율선택과목에 이걸 넣어서 학교교장이 스스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과 실패는 어떻게 돼있는가, 즉 한자 교육하면은 대개 세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국제화·세계화 여기에 대비를 해서 한자도 한개의 외국어기 때문에 우리 한글과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차원에서 이걸 시켜야 된다. 또 영어는 열심히 시키면서 어째 한자는 소홀히 하느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우리의 주변국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일대

한자를 기본문자로 쓰고 있는 이런 그 주변국가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한자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한자를 좀 더 중요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전통문화를 보존 발굴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자가 우리 전통문화의 어떤 그 핵심이 아니냐, 한자로부터 혹은 한문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가 기본 뿌리를 박고 있다고 볼 때 한자가 전통문화발굴의 보존에도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문정책상으로 놓고 볼때도 우리 일상용어의 70% 이상이 한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자로부터 한자가 없으면 우리 신문도 보기가 힘들고 우리 말하는 자체도 한자로부터 나온 것이 70%라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한자를 갖다가 우리는 현재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교육과정에 강력하게 좀 편성을 해서 좀 더 강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그 교육과정 앞으로의 어떻게 좀 지역교육과정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현재 실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여쭙습니다.

세번째는 초·중등 인사예고제 실시 상황은 어떠냐, 그걸 묻습니다.

죽 늘 정치하는 분들 말씀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을 자주 씁니다.

교육계라고 해서 뭐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미래를 예측한다, 즉 앞으로 1년 후 혹은 반년후에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근무할 것이냐, 혹은 승진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본교육청에서는 '신뢰받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시책의 일환으로서 아마 그 인사예고제라는 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하는데 중등에서도 하고 있는가, 상당히 좋은 제도

로서 아주 그야말로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우리 충청북도에 고교입시 전형제도가 참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그 평준화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철폐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1안, 2안을 놓고서 토론한 결과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며칠전에 그 내신 성적만 가지고도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하는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평준화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철폐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온존시킬 것이냐, 거기에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뭔가, 내신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전국이 들끓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해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될 수 있

는가, 중학교에서의 물론 내신이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또 고등학교가 대학갈 때 있어서 또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충청일보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청지역의 고등학교가 30%가 내신관리가 허술하다하는 이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신을 얼마큼 믿어야 되느냐, 고등학교에서 대학갈 때도 그렇고, 또 고입도 그렇고 참 그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가, 즉 뭔가 그 평준화를 철폐한다 할 때 학교를 그 어떤 성격차를 우선 뒤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어떤 그 고객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고릅니다.

똑같은 라면을 산다하더라도 라면의 그 특색을 봐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걸 고르는데, 학교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그 상품을 만들어 놓고서 평준화를 철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학교를 놓고서 뭐 평준화를 철폐하느니 마느니 할 뜻이 없는 거고, 즉 특성이 있는 A학교, B학교, C학교 여러가지 그 특성을 살려놓고서 그리고서 평준화를 철폐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선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학교의 성격차가 있다면은 거리라든가 종교라든가 혹은 그 전통이라든가 몇가지 물론 성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내용상의 문제 지금 그 특수목적고등학교처럼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그 내용상의 특성을 살려놓고서 학생들보고 고르라고 해야 고르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상품을 갖다놓고서 고르라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충북의 고교입시 전형제도가 확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아마 1년 전 일 겁니다.

제가 그 지역교육청에 있는 인사담

당 그 보조 일반적 6급을 여러가지 그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이걸 7급으로 좀 바꿔주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이 실현이 되어서 7급으로 바뀌어진 뒤에 한 1년여가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바뀌어진 이후에 그 기능이 즉 역기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효과면에서 순기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즉 효과가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그 추이를 그 좀 분석해 본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속 좀 분석을 하셔서 과연 잘 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음 번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의 실태 및 대책을 묻습니다.

아까 그 감사수위원장님께서도 그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이런데서도 혹은 학원에서 그 영어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에 종종 보면은 조기 교

육의 그 실패다, 실패작, 그 실패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일찍 조기 교육을 실시했더니  
역효과를 봤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이론이 맞는지 이거는  
참 교육이론상 어려운 문제이겠습니  
다만 그 교육심리학의 유명한 그 피  
아제(Piaget:스위스 1896-1980)라는  
그 교육심리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 그 학생들의 어린이의 그 연령상  
으로 볼 때 여러가지 그 기간을 돕니  
다.

즉, 감각운동기니 전조작기니 뭐  
구체적조작기니 형식적조작기니 해서  
전조작기에 있는 그 먼저 그 감각운  
동기라고 있는데, 이때 즉 2살부터 4  
살 그때가 가장 그 언어가 잘 발달되  
고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논문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은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습니다 마는 2  
살부터 7살입니다.

전조작기라고 하는데 이때 언어가  
가장 발달된다, 하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러나 복잡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2살부터 7살은  
너무 빠르다, 즉 형식적조작기에 와  
서야만 즉 11살부터 15살 이때쯤 돼  
야만 제대로 그 복잡한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기다 하는 그  
런 그 피아제의 논문이 나와있는데,  
이런 걸 놓고 봐서도 너무 빠르게 그  
참 외국어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국  
어 교육을 배우기 전부터 벌써 외국  
어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국어하고  
외국어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물론 국제화시대의 어찌구 하지만  
국어를 알고서 외국어를 아는 것이  
그 순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몇살부터 과연 조기외국어교육을 해  
야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문  
제점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책, 실패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렇게 여섯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충호위원님 질문하시죠.

● 장충호 위원

장충호위원입니다.

한 나라가 부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교육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우리 본도의 정인영교육감님은 본도로서도 초대 민선교육감이시며 또 전국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당선된 교육감으로서 그 동안에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뭔가 충북도의 특색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또는 창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주심초야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그 뜻의 일환으로서 지난 번에 각 시교육청마다 과학관을 신설했고, 또 신설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관이 불소한 투자가 아니고 적어도 5,6억이란 거대한 자본이 투자돼가지고서 이루어진 이런

그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이 투자만큼 비해서 성과도 크도록 이렇게 올리자면은 여러가지 그 계획과 운영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더 어렵다고 할까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은 어느 과학관은 중학교 그 구내에 설치가 되고 어느 과학관은 국민학교에 설치를 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단양같은 데는 국민학교에 했던 중학교에 했던 도보로써 그저 한 10분이내에는 다 갈수가 있지만서도 청주시, 청원군같은데서는 지난번에 왜 남일국민학교에 부설됐는데 거리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서 상당히 그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은면은 단양의 체육관점 강당이 필요하다해가지고서 중학교에서도 애길하고 국민학교에서도 애길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애기를 했지만서도 그 자리를 국민학교에다가 시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공용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운영면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시설은 학교의 전용시설이지 다른 학교에선 잘 이용이 안되고 있는 걸 제논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관도 중학교에 세운 데, 국민학교에 세운 데, 이렇게 왜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앞서가는 충북교육 이걸로서 이 과학관이 인근 경북에도 짓고 있는가해서 제가 단양에서 영풍 그쪽으로 땡기는 영주죠.

대학생들을 몇한테 물어봤더니 "그쪽엔 아직 그런 거대한 그런 과학관이 없고, 뭐 과학교실이라든지 과학실같은 건 있지만서도 그런 건 못봤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과연 우리 충북이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효율적인 그 운영방법을 좀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서 실습실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있는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서는 지금 고등학교의 그 고학년 학생 중 특히 이 실업계고등학교의 애입니다.

특히 단양공고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학기가 되면 전부다 그 취업실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들 나가고 이래서 학교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역시 학교교정을 떠나 가다 보니까 선생님의 지휘 감독도 받을 수가 없고, 또 학부모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실습 도중에 또는 졸업식까지 여러가지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단양뿐만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계고등학교의 그 2학기에 접어들어서 이들의 그 생활지도라 할까, 이것을 어떻게 잘 지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특히 이 생활지도 교사 선생님 아주 많이 애를 쓰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처우랄까 대우도 어

면 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장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앞서가는 총복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교육계는 상문고 이 내 신비리 교육자의 파렴치한 행위로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전 교육자는 이에 몸둘 바를 몰라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싶어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세계가 완전히 개방으로 국제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여기서 낙오가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의 극대화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교육자의 사명감은 다른

때보다도 더욱 더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94년도 새학기를 맞아서 본도의 교육방향과 또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이 몇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과 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의 입시제도에서부터 그 파행적으로 고교의 교육 또는 거기에 따른 중학교 교육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대학교 입시제도가 금년에는 내신 성적으로서 본고사치른 학교가 몇군데 없습니다마는 95학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발표된 거로 봐서는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명문대학 역시 47개교가 본고사를 치른다고 하는 그 발표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고등학교 그 고액과외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처하여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런 대책이 뭐가 있는가, 또 여기에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이, 그 자질과 품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2월 말경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중등교사가 저녁에 술을 먹고 그것도 노상에서 흥기를 휘둘러서 동료직원을 찢어서 중태를 입었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감히 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재삼 재사 또 한번 생각해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충북교육의 특히 더군다나 충북의 청주 도청소재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불 적에 이 교사 이 한 사람뿐인가 또는 다른 교사도 이런 유

사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그 자질과, 자질면으로 불 적에 방학같은 때 그 도박을 한다든가 또는 평상시에도 술을 먹으면 주벽이 많다든가 이러한 교사들은 많이 없는가, 그 후에 이 교사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을 좀 묻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그 보충수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자율학습에 관해서 지난해 교육감 대전 그 회의때 이 자율학습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이렇게 교육감들이 건의해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후에 우리 충북의 각 학교에 그 자율학습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 좀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 보충수업은 지금 아마 전도적으로 중 고등학교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확실성을 갖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도 교육청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각 학교교장들의 자율로 이렇게 해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보충수업비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가, 그 보충수업비를 징수하고 있는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그 참 많이 받고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받고 있고, 이것은 교장 임의로 교장재량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 교육청에서 지침을 줘서 그 범위내에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또 지난 동계방학중에도 보충수업을 각 학교마다 다 했습니다.

여기에 학교 그 보충수업에 따르는 그 경상비라든가 이것도 학생들에게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엇그제께 신문에도 그게 나왔습시다마는 육성회비가 지난해에 23%, 금년도에 13% 이렇게 36%, 이렇게 인상을 해줬는데, 그 육성회비로도 충분히 이러한 보충수업의 경상비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당할 수가 있는데도 굳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징수를 해야지만이 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이 보충수업

비를 월 한번씩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6개월분을 한번에 다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그 기준이 참말로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심도있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도 그 어저께도 신문에 또 이게 났습니다.

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그 선생님들에게만이 보충수업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먼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됐고, 또 당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가 그 사례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담임에게는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 담임이 보충수업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 건가, 이 고지서를 보내서 고지서에서 그 보충수업비를 받고 있는데 이 담임이 징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가지 이 보충수업은 원칙으로

봐서는 희망학생만이 이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학년 전학생이 다 보충수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정이 어떤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설학원의 관리와 그 운영실태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설 학원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갈수록 더 많고 읍소재지 이하로 갈수록 이 사설학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사설학원에서 그 학원비를 받는 것도 각양각색입니다.

같은 업종의 학원에서도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고 어떤 데는 2,3만원 받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10만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아주 각양각색, 천태만상합니다.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그 업종단위로 기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단속을 하신 그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계속하고

또 휴업·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그러한 불온속성이 단속하고 또 못하면 휴업하고 폐업하고 또 다시 신규허가 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 어떻게 효과적인 단속 지도방법은 어떻게 없는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 그 일부 속셈학원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이 속셈학원 같은데는 아마 국민학교·유치원학생들이 많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고등학교 과외를 한다는 그러한 그 여론도 있습니다.

그 진상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 속셈학원에서 그 학원비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절한건지, 그 청주의 모처에서는 속셈학원에서 10만원을 받아서 한번 단속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신성적관리에 있어서 그 국·영·수라든가 이런 학과는 보편적으로 그 시험에 의해서 잘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예체능 과목

에 관해서는 이것이 기준치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먼저 대학입시에서도 예체능에 상당히 문제와 물의가 있었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체능을 담당하는 그 교사의 주관에 의해서 점수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 평가방법이 무엇인가, 그 객관적인 또 장학지도방법은 어떤 것인가 특히 95학년도 대입 내신성적반영에는 행동발달상황과 특별활동상황이 평가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그 3월 18일날 본도 정인영 교육감께서 우리 옥천에 와서 교육발전과 학력제고라고 하는 간담회에 초청연사로 참석을 하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모르는 그런 여러면을 아주 잘 듣고 알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어저께 마침 또 모신문을 보니까 교육감님이 또 대답을 하

신 그 내용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신문에 난 것도 그렇고 그 옥천에 간담회 자리에 그 초청연사로 왔을 적에도 말씀이 계셨습시다마는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사는 교단을 스스로 떠나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도내에 국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학력을 테스트해봤더니, 9.8%가 국문해득을 못하고 산수에 그 기본적인 구구도 못하고 있다, 바로 이 9.8%라고 하는 것은 10%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전국민학교의 10%가, 1할이 국문해득을 못하고 있는 것을 그 테스트결과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아주 공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사는 스스로 그 교단을 떠나야 된다고 이런 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거

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국문해득을 못하는 사람이 전체학생의 10%가 된다고 하는 데는 이것은 참말로 놀라지 않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책임은 교육감님 말씀에도 "이 교사가, 교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자신을 위시해서 전교육자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참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정부에서도 교사자격증 기한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교사 그 자격증을 10년 기한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사를 억지로 나가라고는 못할 망정 이렇게 될 수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미국의 교육제도를 봤을 적에 미국에는 그 계약제도가 되기 때문에 3년계약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교사는 다음에 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사람은 교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사자격증을 한번 취득하면은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충북교육청당국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그러한 그 교사의 또는 무책임한 교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질과 품위가 문제가 되는 교사는 역시 교단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자리를 뜬 다음에 그날 그 자리는 제이씨(JC)에서 초청해서 교육감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교육감님이 먼저 자리를 뜬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남아서 한 얘기를



좀 이 자리에서 소개좀 올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제이씨(JC)청년회의소 회원들은 20에서 40전의 참말로 청년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거개가 다 국민학교 학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젊은 사람들의 교육이념이라고 할까 교육열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30대들 자녀를 둘이상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 딸 구별않고 둘만 낳고 지금은 현재 딸 둘을 낳다고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게 낳고 많이 가르칠려고 하는 것이 이 젊은 사람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또 그냥 학교에 보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청주 도심에는 더 그런 것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학교에 갔다올 것 같으면 1학년 때부터 벌써 유치원때부터 그렇습니다.

피아노 가르치고 미술학원 보내고 또 속셈학원도 보냅니다.

아주 학생이 정신차리지 못하게 뭐 학교갔다 올것 같으면 책보놓기가 무섭게 뭐 피아노 학원도 가고 미술학원도 가고 미술학원도 가고 속셈학원도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새 체육관을 또 보냅니다.

지금 저 꼬마들 태권도복이라든가 이런 체육복을 입고서 운동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렇게 지금 젊은 부형들은 아주 교육열이가 엄청 대단해요.

아주 그 날 그자리에서도 교육감님이 떠난 자리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형들은 학교에 보내는 것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자기네 형편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학교에 이렇게 가볼 것 같으면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이자리에서도 해도 될는지 모릅시다마는 그 날 그 교육감 초청 그 대화장에서도 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선생, 할아버지 선생한테 이 배우기가 극히 뒤틀하다, 이런 애깁니다.

젊은 어머니가 학생을 데리고 학교를 가봤더니 이번 신학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선생, 할아버지 선생이 담임이 됐더라, 어떻게 젊은 선생한테 담임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애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을 만나서 대단히 기분이 안좋다, 이런 애깁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의 여건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날 떠난 다음에도 또 말씀을 또 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실정은 지금 현재 여타여타 이렇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새로 교육대학을 나와서 발령 받은 사람이 한 2,3년간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학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생님도 남아돌고 있는 판인데, 다른 데서 신규교사가 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문제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도적으로 아주 인사를 일원화해서 군단위 교육청단위로 인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단위로 인사를 일원화해가지고서 거기에서로 인사를 하면 모를까, 이것은 교육청 그 지역교육청단위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도교육청 단위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도 해줘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모쪼록 지금 현재 부형들 교육열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에 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신청을 안했더라도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

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하기 위해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4년 3월 25일 (금요일)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 의 된 안 건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1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 질문에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관계관 별로 답변이 끝난 후에 제한시간 10분 범위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질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관계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어제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광산공고와 단양공고 기숙사 운영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위생원배정에 있어 광산공고의 경우 교육부의 기준이 미달되도록 정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나?" 하시는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4회 교육위원회에서 광산공고와 단양공고 급식소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방법을 교육위원회의 의안담당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협의를 했더니, "이재희위원님께서 전화로 사전에 양해 말씀이 되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서면답변을 내

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산공고 위생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님께는 별도로 표를 한 장 그 현황표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공고가 93학년도 학기초에는 기숙사 수용인원이 5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23명, 2학년이 21명, 3학년이 14명 해서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21일, 저희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기능직 인력운영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인원이, 93년 9월 21일 현재입니다.

이때 1학년이 15명, 2학년이 10명, 3학년은 1학기가 마쳤기 때문에 일부 취업이 돼 나가면서 8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33명이 기숙사에 수용이 돼있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이재희위원님께서

는 현장을 좀 가봐서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알고 조정을 하거나 이런 걸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직접 현장을 가지 않았던 것은 이 기숙사 운영에 그 위생원 문제나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이미 작년 9월달에도 가서 조사를 했고, 수시로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생원 조정문제에 대해서 실지는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학기말때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정원조정을 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1학년이 10명, 2학년이 18명, 3학년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28명이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94년도 인제 기숙사 수용인원이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때 1·2학년이 28명이 있었고, 또 앞으로 1·2학년이지만 한 학년

올라가면은 2학년, 3학년이 됩니다.

그 인원이 28명, 그리고 신입생이 약 30명, 많아야 30명 전후이고 또 기존학생들 몇명 추가가 되고 많이 들어와야 추가로 30명 내지 40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0명 내지 70명이 94학년도에 기숙사에 수용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0명당 위생원을 1명씩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교육부지침으로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이 정원이 돼 있는 것을 2월 24일날 그 정원을 가배정을 하면서 1명을 감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인제 그 애초에 3학년의 증원인원이 30명 내지 저희들이 40명을 봤는데, 3학년의 수용인원이 18명있던 것이 금년도 신학기가 되면서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늘어났느냐하는 것을 학교에다 그 알아봤더니, 앞으로 상급학교 작년에 아마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 몇몇 학생들

이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았던지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또 각종 기능사 취득을 위해가지고 학생들이 갑자기 한 5배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신학기 이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129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문하세요.

● 이재희 위원

제가 어제 그 "답변을 이 공개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답변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 먼저 제가 질의한 것이 회의록에 기재가 돼가지고 몇백부가 이 배부가 되고, 또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 회의록을 읽어보고, 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 다음 회의록에 기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여러가지 우리 교육운영면에 효과가 있다면은 이것도 또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서 먼저 질의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하는 것이 일반에게 주지가

되도록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서면답변보다도 공개답변이 좋지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 지금 그 수치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역시 지금 지난 번 연말에 광산공고는 28명, 2학기 말에, 단양공고는 82명, 뭐 40명씩 한다고 하면 이제 광산공고에 2명도 많은 거고 그런데 단양같은 경우에는 40명씩 기준하면은 둘 아니면 셋이면 되는데 여기는 넷으로 해봤다 이거야.....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공고는 지금 작년 1학년이 9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54명이 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로다가 50명 전후 많으면 60명까지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기존 학생들도 몇 명 누는 것 까지 해서 50명 내지 60명이 늘 것이라 하는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명 내지 140명이 전후될 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4명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140명이면 4명을 배정해야 됩니다.

● 이재희 위원

글쎄 결과적으로 인제 3월, 이것도 인제 3월달에 발령을 받으신 건데 지금 3월 15일 현재로는 광산공고는 129명이고 단양공고는 149명이야.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이건 정원배정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 이재희 위원

글쎄, 인제 그러면 이 정원배정이라는 건 다달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주기적으로 해야될 거 아녀.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그건 1년에 한번 합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면 요전에 내가 가보니까 129명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조리사 두명이 요리가 엄청히 불편하더라고.

(행정관리담당관 "예"하고 말함)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또 단양공고하고 제천광산공고하고 그 조리실 그 시설을 비교해보면 광산공고가 엄청히 낙후된 거야.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오래됐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러니까 이러면은 1년 동안에 광산공고의 그 기숙사운영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추가배치하면 내년이야 되고, 그때가서도 또 어떻게 될는지 미지수다 이거야.

그러면 이 보완책으로 어떤 무슨 자동세척기를 좀 보완해주든지, 시설보완을 해주든지 해줘야만 이 광산공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현 상태로 정말 어렵게 됐다 이겁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하고 말함)

그래서 뭐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교육위원이 그 애길 안했으면 그 조정문제가 또 어떻게 그냥 넘어갔었을른지도 모르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수표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따지면 이게 내가 발언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는 불리함을 주지 않았나, 이런 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제가 뭐 광산고등학교 바로 가서 뭐 이 경위는 애길 하겠습니까만, 후속조치로 1년동안의 그 중

원없이 그 시설까지곤 어려우니까 뭐  
이 주방에 시설보완 이런 것을 추경  
에 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애초에 60  
명 전후해서 될 인원이었던 것이 129  
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그 기숙  
사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렇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  
씀을 하셨다고 정원배정 감(減)을 안  
할 걸 저희들이 했거나, 또 감(減)을  
해야될 걸 안했거나 그런 일은 없습  
니다.

그건 없고, 단지 여기선 좀 그런  
차질, 차질이 아니라 그 예상치 못했  
던 기숙사인원이 배이상 이렇게 들어  
옴으로 해서 지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도 그 세  
척기만 사주면은 그냥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거는 어제도 저희들  
이번 추경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  
한 대책은 지금 아마 세우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재희 위원

그럼 저도 인제 가서 세척기 하나  
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할 테니까 분  
명히 말씀을.....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그건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세척기관계는 답변을 못드리고, 단  
지 인제 이렇습니다.

7월달이 돼서 1학기가 끝나면 여기  
에 3학년 학생들의 거의 80%내지 90%  
는 또 기숙사에서 또 빠져 나갑니다.

그럼 2학기 때에는 여기에 5,60명,  
50명정도도 안됩니다. 실지.

이 3학년 애들이 103명이 지금 있  
는데 분명히 여름 방학만 지나면 거  
개가 기숙사에서 지금 퇴소가 됩니다  
그건 뭐.

● 이재희 위원

근데 그건 하는 걸 가 보니까 이  
기숙사에 그 기숙생만 하는 게 아니  
라 자연적으로 선생님들도 점심식사

를 하고, 또 거기 배구부가 있으니  
배구부만 해도 한 20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곁들여 있으면 늘  
그냥 적어도 한 100여명은 먹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 좀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거기에 대한 운영에 지장이 없  
도록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되셨습니까?

(이재희위원 "예"하고 대답)

그러면 또 행정관리실에 대해서 보  
충질의 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위원 하세요.

● 권혁풍 위원

기숙사의 그 기능직관계 말씀을 하  
다보니까 제가 우리 음성의 그 음성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숙사는 이 광산고등학교  
라든가 단양공고는 도비로써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고등학교는 도비까지  
바라지 않고 자체로 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감이라고 할까  
기능직이라고 할까 그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티오(T.O.)배정같  
은 것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학교도 도와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  
는 그런 말씀과 또 제가 사적으로 말  
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어제 그 했던  
오선국민학교, 자체 그 학교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을 하는  
데 그 운영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티오(T.O.)하고.

기능직 티오(T.O.), 운영비 이런  
것도 좀 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는 학교도 역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인문고등학교의 그 기숙사 운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가 기숙사운영  
을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어느 인문학교든지 야간 학습  
이나 또는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설치해서 거기에 운영비나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했을 때, 그건 전체로다 그건 할 수가 지금 없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버스 문제도 제가 예산을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학교에서 그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지원은 아마 예산에다 해결 수가, 주고 싶어도 없을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그 예산문제는 이때 예산담당관이 다시 한번 밝히기로 하죠.

또 권위원 됐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문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다음 나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이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신뢰받

는 교육의 해'에 있어서 교원 사기진 작책이 중요하다. 보수면, 인사행정면 또 포상면, 업무경감면 이 네 분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수면으로 볼 적에는 이 교원 보수에 관해서는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므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그 3조에 보편은 교원보수 우대조항은 이것이 설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이 조만간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다음에 인사행정면에서 희망지 그 근속기간등을 고려해서 공정한 전보를 하겠다, 둘째번에는 승진이나 신규 임용, 이때는 주로 생활근거지로 배치해주겠다, 또 도내에 3학년, 4학년 3학년이상되는 학교가 177개교가 되는데 그런 소규모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해서 교원들의 수업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을 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 3월 1일자 전보에서 보면은 청주가 희망자의 63.7%가 희망대로 들어왔습니다.

또 청원군은 거의 96% 들어왔고 나머지 여타 시군은 희망한 사람은 다 들어왔습니다.

100%들어왔습니다.

셋째번에 포상면에 대해서 말씀을 리면은 저희는 이 포상에 관해서는 제일 실적주의, 실적이 있는 선생님을, 둘째번에는 다 경력자, 경력이 좀 그래도 많이 있는 사람들, 셋째번에는 하위직급자, 교장·교감보다는 교사위주로 포상을 합니다.

또 넷째번에는 학교와 학교급별 지역을 안배해서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다, 그런 네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교원들간에 대단히 많이 논란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업무경감에서 주로 교원들의 소리가 이 공문서를 감축해달라 그런 애기가 있는데, 그 감축에 대한 저희의 방침은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우선 공문서를 생산하는 걸 억제하자, 둘째 처리과정을 좀 간소화 시키자, 셋째는 보고를 좀 간편화시키자, 그런 방향에서 대원칙을 삼고서 방법적으로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회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의 회보와 금년 1,2월의 회보발행 횟수를 보면은 작년에는 3번했는데 금년에는 11회, 또 게재건수 회보의 게재건수는 작년 두달동안에는 19건이었는데 금년 94년 1,2월 통계를 보면은 76건으로 약 4배가 이렇게 회보에다 게재를 해줬습니다.

보고문서 통제 관계는 해당학교에 보고를 해야할 해당학교에만 공문을 내주고, 또 보고도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서면보고로 받지 않는 걸로 또 보고통제는 철저히 이행해서 미통제보고는 시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이나 이 단체공문이 많은데 그것은 금년 3월 14일자로 차상급 기관에 협조,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지시없는 대외기관의 공문은 일

체 처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3월 14일자로 내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경감에서 이 공문서 감  
축에 대해서 제일 논란이 되기 때문  
에 좀 세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상일 위원님께서 "교  
장·교감의 교내장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무슨 지원을 해줬으며  
일선학교에서 장학평가제 채택 용의  
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  
데 이 교장·교감의 이 교내장학활동  
은 대단히 이게 교육의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  
원을 해주었다면은 93년도에 이 장학  
활동으로서 우수한 사례, 그런 것을  
우수한 사례를 모아가지고서 장학자  
료를 만들어서 도내에 초·중·고등  
학교에 700부를 나눠줬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보면 교내 장학활동  
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어느 학  
교는 어떻게 우수한 장학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 교장·교감에 우선 연찬의 기회  
를 마련을 해줘야 되겠는데, 뭐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월달에 국

·중·고등학교 교장연찬회를 마쳤습  
니다.

8월달에는 국·중·고등학교 교감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연찬회 석상에서 교내장학활동,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이런 상호 세미  
나가 있겠고, 저희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평가제, 평가제 채택문제는 학  
교에서는 1년에 두차례씩 학교 자체  
로 학교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각 학교의 학교경영 평가를 합  
니다.

그럴 적에 학교 자체의 실시하는  
그 자체평가 항목 중에 교내 장학활  
동, 교내 연구활동은 어땠었느냐하는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학  
만 쪽 때서 평가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이재회 위원님께서 "교원대  
학교 석사과정 특별연수 대상자의 선  
발 방법, 또 장단기 계획은 어떠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발방법

은 교원대학교에서 일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되면은 저희가 2년간의 파견근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실적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교원대학교가 위치가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타시도의 인원배정보다 저희도의 인원배정배 이상을, 3배 가까이 이렇게 인원배정을 해줍니다.

이것만 해도 교원대학교가 저희 충청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충북교원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3년도에 충남은 9명을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는 무려 45명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94년도에도 똑같이 45명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타시도보다 월등히 저희 충북에 배정을 많이 해줬고, 또 합격하는 것은 거기에 그 모집요강, 요강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그래서 일정한 수준, 합격을 시키는데 93년도에 58%가 합격이 됐고, 금년도에는 46%가 지원생의

46%가 합격이 돼서 올해 조금 합격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여기에서 저희 충북교원이 교원대학교에 지금현재 총 68명, 93년 94년 양해 68명이 교원대학교 2년 석사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국민학교 조기영어 교육의 실정은 어떻고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국민학교에 이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된 것이 1982년부터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국민학교에 영어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지시가 됐는데 단, 그 때 지시사항을 보면은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정과시간 말고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 12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저희 국민학교에서 영어·일본어·중국어 새개과목을 지금 외국어 교육으로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는 국민학교 전학교가 실시하고 있고, 일본어는 지도교사의 자

원을 생각해서 39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고, 중국어는 15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는 그 지도교사가 일본어쪽에서는 많습니다.

참 영어쪽에서는 국민학교 영어를 참 생활영어로 가르칠만한 자원인사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중국어는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5교가 중국어 특활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 교사 그 지도교사는 방통대출신이라든가, 또는 충북대 또는 청주대의 중어과 출신이라든가, 또 화교 그 원어민, 이 분들의 자원인사를 활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원인사 확보때문에 미국의 치코캠퍼스라고 해서 거기서 초등교사가 지금 현재 총 36명이 2개월 미국가서 연수를 받고 온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방법면에서는 카세트테이프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교재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의 기반이, 기반이 아주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에서 생각하는 목표대로 조기 외국어교육이 실현된다, 이렇게는 제가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내에는 유치원이 공립이 267인데 이 공립유치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설유치원이고, 사립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124원이 있어서 공사립 합해서 391원이 됩니다.

이 사립 124원도 청주시내에 65개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이 청주시내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 "사립유치원이 어떤 데는 모집인원에 미달 사태고 어떤 데는 너무 많아 가지고서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 이유



가 시설에 있느냐, 시설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다면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우선 시설이 첫째 요인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시설입니다.

다음에는 그 유치원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유치원이냐, 역사.

다음에는 그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의 자질입니다.

원장의 자질과 능력, 또 교사의 자질과 능력 또 학부모들의 그 유치원에 갔을 적에 경제적인 부담, 그것도 고려해서 선호하게 됩니다.

또 교육시간으로 보서는 하루종일 가르쳐주는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주시내에 과원사태,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번에 "사립유치원에서의 교육내용이 뭐냐?" 어제 말씀하시기를 "영어, 한자, 속셈, 뛰 수의 연산 이런 변태적인 교육내용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러한 쪽으로 사립유치원 교육내용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이 그런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참 공립유치원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이러한 잘 신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립유치원도 있다는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징수한도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의하기를 관리국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도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장학협회가 도에서 어떻게 했으며, 또 청주만은 어떻게 장학지도를 했느냐?" 그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도에 장학관이 한 분 있습니다.

또 도에 장학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장학관, 장학사 두 분 또 지역교육청에 장학사가 한 분씩 있고 진천만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 도교육청 장학지도는 1년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역교육청별로 2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장학지도를 나갔다했을 적에는 유치원에 가는 모든 교육행사, 교육협의, 교원연수 이런 걸 통합해서,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면은 보은교육청에 도 장학협의가 나갔다하면은 보은교육청에 장학사를 비롯해서 유치원교사들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전원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협의를 하고 연수를 하고, 또 유치원 교구교재에 대한 그 동안에 만들었던 교구교구를 가지고 와서 전시회까지 합니다

또 수업도 거기서 유치원 수업도 경연도 한번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도 장학지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1년에 두번씩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올리고 청주시 실적을 보면은 공립이 25개교, 사립이 65개교 90개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립 학교는 국민학교 장학협의때에 같이 나가서 청주시교육청

국민학교 장학협의 때에 유치원담당 장학사가 같이 나가서 맡고 있고,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내 공립은 1년에 한번씩 다 장학지도를 하게되는 거죠 사립은 1원 내지 2원, 하나 내지 두원은 장학사가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원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청주시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청주에 6개 지역으로 나뉘고서 사립유치원은 6개 지역으로 나뉘고서 이래서 그 자생적으로 연수 또는 수업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청주시 장학의 특색이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은 교육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지도할 분야가 지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겠고, 공립유치원은 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들이 또는 교감선생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운

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충북 교육 바로 세우기' 단체는 공인된 단체냐, 또 교장·교감의 교내장학의 현실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북교육바로세우기' 단체는 이 공인된 단체가 아닙니다.

확실한 정체도 드러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장·교감의 교내장학실시 상황 그 '충북교육바로세우기' 그 단체에서 그 위원님들께 주신 그 서한문을 이렇게 보셨을 적에 "교장·교감이 교내장학도 한 번도 안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아마 편지에 적어서 보내신 걸로 있는데 좀 그 '충북교육바로세우기' 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 있지도 않고 저희가 그걸 알아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영 알아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써있는 그 편지에 써있는 내용 그 대로 그렇게 교장·교감들이 교내장학활동을 안하고 있

다, 이건 너무 그 사람네가 과하게, 과하게 일선학교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내장학활동에 대해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연간 교육을 세워서 연구수업도 하고 또 교내 순시도 하고 또 직무교육도 하고 이런쪽에서 불 적에 교원들을 지도하는 쪽에서 교장·교감이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교장·교감에 따라서는 참 등한시하는 그런 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박병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에서는 월반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 또 유급제, 능력별반편성에 대한 방침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월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전에 교육부장관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연구 검토되고 있지만 그 시행을 위한 어떤 법개정이란가 이런 것이 아직 저희한테 시달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월반제문제는 저희 방침으

로 하겠다, 못하겠다 그거보다는 교육부의 지시에 의거해서 우선은 교육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급제와 능력별 반편성문제는 이 국민학교는 이견 법상 안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장에게서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능력별 반편성은 정과교과시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단, 중고등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라든가 자율학습 이런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지도는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자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또 실태 이래서 교육과정이 분권화되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 교육과정 편성에 한자 교육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도 같은데,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도교육과정 편성지침에 "한자교육을 해라"하고서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자교육을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길이 뛰냐 그걸 말씀을 드리보면은 내년서부터 실시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 학교 재량시간이 일주일에 한시간씩 있습니다.

그 재량시간 운용을 한자를 하든 영어를 하든 컴퓨터를 하든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의 욕구와 희망에 의해서 재량시간에 한자교육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도에서는 교육과정에 한자교육 편성은 이게 못합니다.

다음에 또 권혁풍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초·중등 인사예고제 실태 상황을 말씀해 드리면은 금년에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청주에 금년에 결원이 몇이 생기는데 청주에 희망자가 몇이냐, 이걸 11월달에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청주 결원에 그걸 보충을 하려면은 적어도 시군에서는 3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이어야지 청주를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한 통계가 나와서 그걸 청주시내에 저희가 희망자들에게 알려준 겁니

다.

그랬더니 그런 인사예고제는 대단히 참 일선교원들로부터 많은 그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교장·교감승진대상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금 전체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9월달에 교장나간다, 나는 9월달에 교감나간다하는 것까지도 지금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교장·교감승진 후보자 순위,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금년에 자격연수 받을 수 있다하는 것도 예고를 해줬고, 또 장학사·연구사 전직 임용대상자도 예고해줬습니다.

또 타시도 진출예상, 또 타시도에 갈 수 있다하는 전보예상 이런 것도 다 예고를 해줬더니 거기에 대한 교원들의 반응은 이것은, 제가 지금 다섯가지 말씀드렸는데 초·중등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권혁풍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교육청 인사보조 배치이후의 결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1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적 6

급을 인사담당자로다가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인사 7급을, 아니 일반직 7급을 배치를 했더니 어떠한, 마 1년 동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뒤속단인 것 같습니다마는 6급이 할때가 7급이 할때보다는 인사업무에 대한 책임이 책임의식은 6급이 낫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사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은 6급이 낫다, 그러나 6급이 교육청에 있을 적에 전문직간의 업무처리 문제 또는 좌석 배치문제 이런 쪽에서 일반직 6급과 전문직간의 다소의 다소의 애기가 오고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7급이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해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소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초등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 초등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는 중등국에서도 다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능력별 학급편성방안이나 월반제에 대한 대책은 중등교육국에서도 다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등교육국소관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상일위원 먼저 하시죠.

● 부의장 이상일

이상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그래 인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아까 공문서 감축문제에 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그 말씀하실 때는 늘 그 공문서가 줄어드는 쪽으로 행정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 교육청이나 선생님들한테 얘길 들어보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공문서감축에 노력을 하시

는 걸로 저희가 알고 계속 좀 그렇게 추진하셔서 일선에 선생님들이 아 확실히 공문서가 좀 줄어들었구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었구나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럼 이위원은 그 한가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권장사항이죠?

(이상일위원 "예"하고 대답)

부탁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이재희위원.

● 이재희 위원

저기 교원대학교에 그 석사과정 그 입학관계는 학교에 일임을 했는데, 지원관계는 대개 뭐 근무경력 몇년 이상이라든지, 연령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보고, 그 다음에 2년동안 상당한 특혜를 보는데 2년동안 해가지고 학위취득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수료로만 해도 되는지 어떤 학위취득을 못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저희가 추천할 적에 희망자는 거기 그 경력년수, 경력년수라든가 이런데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3년이상, 교육경력이 3년이상인 자는 교원대학에 석사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도록 돼있고, 저희가 시군에 지역교육청에 희망자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적격여부 석사과정의 적격여부는 저희 내적으로 심사는 하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은 저쪽에서 인재 시험봐서 그래서 합격통지가오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년동안에 이 석사학위, 학위취득관계는 학위취득이 됩니다.

석사학위 논문까지 제출을 해서 학위까지 받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한 혜택입니다.

2년간 파견근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외로 간주해서 2년간 거기서 공부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은 대단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재희 위원

글쎄 그런 혜택을 주는데 석사학위 취득을 못받는 사람은 어떤 제재조치가 없는지.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제가 세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입학하고서.....

(관계실무담당자가 초등교육국장에게 전원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알려줌)

그 전원이 다 석사학위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 이재희 위원

예,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되셨습니까?

다음 김광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까

● 김광수 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교원대학 그 연수과정에서 아까 사십 몇명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현재요?

● 김광수 위원

93년도하고 94년도 합해서?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에게 실무과장이 그 수치를 알려줌)

68명입니다.

● 김광수 위원

68명이예요?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93년도에 42명, 94년도에 26명이래서 68명이.....

● 김광수 위원

거기에 초등이 몇명이고 중등이 몇이고 됩니까?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이 초등이 합격인원만 말씀هل?

●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지금 연수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93년에 19명, 94년에 16명, 초등이 그래서 35명, 중등이 93년 23명, 94년 10명, 33명, 계 33명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분들이 그 연수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나오면은 개인적으로 봐서 무슨 그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진에 관한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승진에 관한 것은 이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로 봤을 적에 석사학위 소지자는 장학사 임용조건이 됩니다.

우선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그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들이 자기네끼리 자생적으로 씨름을 만들고 있어요.

이래서 연구지도에 관한 화보, 충북교육에 이 사람들이 2년간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일선현장 개선에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학회지같은 것도 저희 학회지가 아니라 연구지도 저희한테 꼭 주고 또 논문집도 석사학위 논문집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2년간 하고 난 뒤에는 나한테는 나한테 와서 선물줄 것은 학위논문집이나 좀 다오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많이 걸어 놓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이 연수를 마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혜택이 좀 가야 되겠지만은 이분들이 다시 일선 현장에 돌아와서 많은 그 교사들의 자질면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가지 그 학사면으로라든가 상당히 앞서가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돼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저 제가 직접, 질문서에서는 냈습니다마는, 어제 질문을 드리진 않은 그 조기 그 외국어 교육 문제 국민학교에서 지금 현재 영어·중국어·일어를 하고 계시다는데, 역시 이게 이제 12년간 되면서 이 자원, 자원이 문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이 됐으면은 이 자원문제도 역시 뒤따라서 이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그 계획만 해놓고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컨대 특별활동시간에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느 학교에 그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는 되고 없는 학교에는 안되고 이렇게 인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참 그 걱정해주시는 문제, 지금 교육부에서 "비단 영어뿐 아니라 영어·음악·미술, 거기에 대한 시범 학교를 뒀다. 또 자원인사를 활용을 해라, 또 유료로 해도 좋다. 예를 들어 영어 자원인사가 있다 할 적에는 그 부모에 의해서 그 학부모들이 조적을 해가지고서 유료로, 유료로 자원인사를 활용해도 좋다." 그러한 지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가지고서 예를 들면 교원대학교 부속국민학교 하면은 그게 매주 매주 목요일날 교원대학의 미국사람 그 미국 그 교수를 데려다가 지금 한시간씩 내지 두시간씩 그 부속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원인사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 교육대학교  
측에서 국민학교 영어과정을 좀 담당  
하기 위한 그런 교원양성이 심화과정  
을 설정을 해서라도 양성이 돼야 될  
걸로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답변엔 없었습니다  
마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중에 초  
등교육의 10%정도가 기초학력이 돼있  
지 않다, 말하자면 국해(國解)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교  
육감님 발표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또 전체적으로 그 시험테스트 해 본  
게 그런게 나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  
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어제 말씀하신 그 9.8%라 9.8%라는  
그 인원은 금년에 중학교에 신입생이  
2만6천8백 몇명입니다.

그 중에서 9.8% 즉 2,326명이나 됩  
니다.

그 금년에 진학한 2,326명이 기초  
학력이 부족이다, 이렇게 그 통계에

나온 겁니다.

2만6,000명이 진학을 했는데 기초  
학력이 미달자가 2천 한 3백명 한  
9.8%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  
걸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 2,300명이라고 하는 그 국민학  
생이 수학능력이 없다, 중학교에 가  
서 수학능력이 전무한 상태다, 이렇  
게 저는 해석을 할거나, 여기에는 저  
는 지금 고민을 느끼고 지금 현재 있  
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5문제, 그러니까 국  
어 5문제, 산수 5문제를 내서 거기에  
10문제 중에서 6문제가 그러니까 4문  
제가 틀렸죠. 60%이하니까 4문제가  
틀렸으면은 그 통계2,300명중에 거기  
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 5문제하고 산수 5문제하고 10  
문제 중에 4문제 틀렸으면은 그 2,30  
0명 중에 포함이 돼있어요.

그것이 9.8% 2천3백몇명인데 거기  
에 대해서는 그 뭐 저도 책임을 느낀  
니다.

느끼는데 앞으로 그 기초학력 미달  
자를 해소하는데 대해서 해소하는데

대해서 그 통계 나오고 난 뒤에 저희 장학과에서 여러가지로 해소방안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내년에 그런 9.8%의 기초학력미달자가 나와선 안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이건 사실 보통문제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런 사람 무능하고 책임이 없는 그 교사는 물러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초등에 중등에 다 똑같이 아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교사의 자질과 품위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특히 6년간 국민학교,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에서 6년간 배우고 나왔는데도 기초학력 국해(國解)정도를 못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선생님들 또는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이렇게 초등교육을 이제까지 해왔다는 것은 우리 충북교육의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런데 인재 그 국문을 해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국해(國解)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펄럭 펄럭입니다.' 그게 13자라면 13자를 받아 써야 됩니다.

13자중에 한자만 틀렸어도 그건 틀린거예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게 13자라면 그 중 한자만 틀렸으면 그냥 기초학력미달자로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국문을 해득했느냐, 그걸 받아썼느냐, 13자를 받아썼느냐 하는게 문제지 국문을 해득을 못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13자를 다, 13자 받아 썼어야지 2,300명중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간에 2,300명이 발생했다는 문제는 저희가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웬만한 애들은요 벌써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1학년가기 전에 국문해득 집에서 웬만하면 다 하고 가요.

지금 부형들이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이 부형들은 30대 초반 또 30대 부형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보편적인 보편적인 애들은 국해(國解)를 하고 들어갑니다.

전부 저 한글을 알고 들어가요.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문자를 이해하는 이해력과 글자를 쓰는 서사력과는 이진 줌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요.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에게 이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중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뭐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테지만은 철저하게 기초

그 교육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하고 대답)

예, 감사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까?

● 감사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달 유치원에 대해서 그 사유는 잘 들었는데, 사유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미달로 인해서 폐원이 되는 학교, 학교가 저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립인가만 내줄게 아니라 역시 육성하는 의무도 우리 당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미달 유치원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좀 하고 해서 그 미달의 사유와 또는 특히 인제 그 폐원되는 유치원은 되도록이면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애초에 설립목적에 의해서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원을 해서 유치원을 설립했으면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

록 그런 감독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실지 폐원을 해야 되겠다는 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서 폐원이 되지 않도록 그 사유를 밝혀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알겠습니다.

● 김사수 위원

그리고 이 장학지도도 뭐 적은 인원이 가지고 이 많은 것을 하기 어려울 줄 아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유치원에 한번 그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긴장도 하고 참 뭐라고 할까 그 두려워하고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장학지도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나가서 좀 보시고 해서 우리가 이 우리 도내의 유치원이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박병해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병해 위원

예, 유급제관계 이런 문제는 안한다고 하는 게 이게 학교의 자율화나, 그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아까 그 바로세우기 단체라고 하는게 이게 전교조하고 관계는 없는 거냐, 이런 문제 또 하나 이 장학문제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어떤 제도나 뭐 이런 기회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걸 묻고 싶은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초등국장님 답변 그만두시고 이때 중등국장님이 이거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뭐 답변 요하지 않으십니까?

또 있으십니까?

(박병해위원 없다고 말함)

예, 권혁풍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권혁풍 위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한자교육을 학교에 일임을 하시는데, 6차 교육과정에서는 도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이상의 그 교육과정 편성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차원에서도 정말 한자가 필요하다 할때는 학교에서 재량이 맡길 수도 있지만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좀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편성시킬수 있는 그런 그 재량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 좀 해주시고, 두번째 그 인사예고제 말씀은 아주 그 인사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또 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을 그 6급에서 7급으로 변한 뒤에 7급이 책임의식이 좀 떨어졌다, 그러나 전문직과의 관계 좌석배치면에서는 약간의 그 마찰이 해소됐다."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찰이 해소된 것 만은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어제 책임

의식이 또 줄어들었다하는 것은 7급이 6급으로 줄므로써 책임의식이 줄었다, 좀 물론 7급과 6급과의 사명감이 좀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뚜렷한 그러한 변화가 왔다면은 이것도 어떤 그 시정조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기 외국어교육에 관해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그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유치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국민학교에서 하고 있는 말씀만 해주셨는데, 유치원에서도 외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너무나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어떤 그 역효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 그래 그 먼저 제가 어제 피아제(Piaget:스위스 1896-1980)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두살부터 네살, 이게 아마 유치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 네살이면은 그때 그 물론 언어가 상당히 발달되는 땐데 이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하게 되면 국어도 배우기 전에 한국사람으로서 한국말도 배우기

전에 영어를 배우게 된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아이가 커서 정말 한국사람이 되느냐, 미국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그 갈등을 느끼면서 뭔가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 답변하시기 전에도, 내가 한가지 더 부연해서 보충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국장님께서 "인사보조직에 대해서 6급에서 7급으로 되니까 책임의식이 더 소홀해졌다." 이런 답변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기에 6급이 되든 7급이 되든 이것은 인사 주무자가 아니고 장학사들이 하는 인사보조자로 알고 있는데, 인사보조자로 된다면은 여기에 굳이 6급, 7급에 가서 책임감이 좌우될 리 없어요.

더군다나 그 마찰요인이라는게 왜 왔는고 하니 소위 6급이 가가지고 계장행세를 해서 책임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마찰요인이 온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해소됐다면 바람직하게 변화된 것이지 책임의식이 회박해졌다는 건 나는 그 답변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권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한자교육 내용을 지역교육과정에 편성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준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과정에는 한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과정에 그걸 집어 넣을 수가 50%의 재량권이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있겠느냐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충분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그 조기 영어를 하고 있다."하는 문제는 저는 그 당초 발상서부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피아제(Piaget)의 이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의 그 교육과정이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방법은 놀이 중심으로 하고, 또 내용의 목표는 유치원교육의 목표는 지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신체발달이라든가 언어발달이라든가 그런 걸 촉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전시효과를 노리고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속셈도 하고 뭐 산수고 가르치고 문자도 가르치고 그러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라 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건 저는 못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권님하고 동감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의장님하고 또 그 6급·7급사이에 제가 답변을 잘못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은 인사담당자였습니다.

엄연히 사무분장표에는 "초등계장이" 초등계장사무분장표에 "인사를 담당하다. 관내 국민학교 교내 인사를 담당한다."라고 써있었습니다마는

과거 6급이 나갔을 적에는 완전히 인사의 주무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 지금 "책임의식이 희박해졌다"는 그런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7급이 나갔기 때문에 인사의 주무는 초등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장학사가 맡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전에 6급은 완전히 인사를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서 인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서 6급이 인사업무를 처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주시교육청의 인사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걸로 책임을 가지고서 6급이 했기 때문에 7급은 장학사의 하나의 보조역할을 해준다해서 제가 그걸 표현을 책임의식이 6급있을 때에는 인사 전체를 책임졌는데, 보조를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 조금 적지 않아졌느냐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실 적에는 6급·7급이 나가서 7급이 나갔다고해서 인



사에 책임의식이 없어졌다는 이견  
표현상 잘못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내용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 의장 김영세

그 내가 보충질의 하나 더하죠.

권위원 미안합니다.

분명히 과거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번 했어요.

여러번 했을 적에 인사보조자라고  
답변했습니다.

규정과 그때 답변과의 차이가 있다  
면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  
해보지만 분명히 장학사가 인사권의  
주무자고, 그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  
기 위해서 6급으로 교육부에서 지원  
을 더 얻어가지고 배치를 해서 보조  
역할을 한다, 우리한테 몇 번인가 답  
변해줬어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우리도 검토해 볼테니까.

예, 진행하세요.

권위원 뭐 다됐습니까?

(권혁풍위원 "예"하고 대답)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약 70분이  
진행됐습니다.

지루하고 여러가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중등에서도 답변  
을 하라는 능력별 반편성과 월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도 역시 능력별 반편성  
은 정규교과시간에는 허용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를 못하고 있고 반면에  
보충수업시간에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실시하는 학  
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반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속진제의 하나인데 역시 저희들 도에서 아직은 중등학교에서도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병해 위원님께서 중등에서 답변하라고 하시는 교내 장학지도 방법의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에는 임상지도 또 확인장학지도 그리고 교내장학지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학교의 교내 장학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교장의 확인장학과 동료장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장학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미 지도가 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급제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각 학교의 학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유급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부진학생을 위해서는 유급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교육바로세우기 단체에

대한 설명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 단체의 정체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유명단체가 아닌가 또 우리 교사들 가운데 교육개혁 차원에서 모순된 것을 건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한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렸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신장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충청북도의 학력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전국적으로 시도간 학력을 비교하는 평가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전국수준으로 봐서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입학한 현황을 가지고 짐작을 하는 것이 어떨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 93학년도에는 서울대학에 138명이 입학을 했습니다만 금년 94학년도에는 163명이 입학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합격한 학생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3%가 증가된 현황으로 봐서 학력이 신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력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사측면에서 교사는 사고력과 창의력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생이 수업에 참가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연구해서 참여식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직 연수 또는 교과연구회 교내 연구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교수력 개발을 신장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 탐구학습, 토의 학습방법에 익숙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전 진단평가를 통하여 그 학력수준에 따른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학력신장에 이바지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를 통해서 미진한 것은 피드백(Feedback)해서 학력신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학생측면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제학습에 노력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현장답사나 각종 자료 조사를 하거나 또는 수집활동을 하거나 독서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 자기 학습력개발에 노력해서 좋은 학력이 신장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성적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용이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인 예체능 객관적 평가방법은 무엇이고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대입내신성적 반영에 행

동발달사항과 특별활동사항의 평가도 포함해서 공정성있는 객관성있는 문제가 어떻게 돼있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행동발달 및 특별활동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각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예체능교과의 객관적평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 원칙으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과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요령에 의해서 예체능교과의 실기 평가를 비율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미술은 70%, 체육 80%이런 정도로 이제 이론과 실기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준수하고 무단결과없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배점의 70%이상을 부여하는 가산점수 제도가 실시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을 해서 그 기준에 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준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집필평가문제 출제는 타당성과 신뢰성·객관성을 가지도록 출제하고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고 평가기준등을 작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동일교과의 담당교사가 여러명이 있을 때에는 협의해서 공동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평가과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기평가의 성질에 따라 평가기준을 공정한 아, 공개한 후 개인별 평가표에 의거해서 평가후 평가결과를 즉석에서 공개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일정한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답고사나 실기고사 이외의 성적을 합산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조자료도 역시 학교장책임하에 일정기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는 장학협의를 영역별로 분담을 해서 학업성적관리지침과 고등학교 성적관리요령에 의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아울러서 예채능실기평가는 개인카드를 작성을 하고 활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개인카드를 점검을 해서 객관성있는 평가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항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행동발달사항과 특별활동사항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발달평가는 이미 아시겠습니까마는 6개 등목을 중심으로 행동관찰결과를 누가기록하고 상벌대장에 의거해서 평정하고, 역시 개인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누가기록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사항 평가도 그 영역이 학생회, 학급회, 클럽활동, 학교행사 등의 영역에 걸쳐서 학생의 출석상황과 활동사항, 성취도 등 3개 영역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누가기록을 학년말에 평가를 하고, 3학년

의 경우는 3개년 득점을 합산을 해서 등급을 사정하는데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행동발달 및 특별활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동발달지도는 모든 교과에 걸쳐서 또 특별활동 활동에 걸쳐서 각 분야의 교육활동에 걸쳐서 지도되고 있으며, 특별활동교육도 학교실정에 맞게 클럽활동반을 조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각종 학급회나 학생회나 클럽활동이나 학교 행사의 모든 영역에서 충실하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선학교 성적처리시에 컴퓨터평가에 대한 공정성확보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적처리는 컴퓨터담당교사가 컴퓨터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교평가규정을 완전히 인지하고 자체연수한 뒤에

컴퓨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보면은 컴퓨터의 성적 입력전에 각 교과별답안지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컴퓨터 담당교사의 처리과정은 1차 산출 후 교과담임, 그리고 학생의 확인을 거친 후에 정확성이 인정되면은 연구주임, 교감, 교장이 확인 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정성있는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장·교감의 교내장학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료장학, 임상장학, 그리고 교장·교감의 확인장학을 일부교사에 한해서 실시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내장학계획을 수립해서 자기장학, 동료장학, 임상장학, 확인장학 중 선택적으로 전원이 장학활동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장학협의시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내 일반계고등학교의 어학

실습실 설치 현황은 중학교가 21개

고등학교가 15개교 이렇게 합해서 36개교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어학능력배양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으로는 외국어 시간에 각 학급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단원별로 어학능력배양을 위한 시간을 배정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및 제2외국어는 청주시지역 4개교실을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어학능력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오래돼서 활용이 어려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어학실 기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비정신 지도자료 활용이 얼마나 되며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선비정신 지도자료를 94년 2월 22일에 1,700부를 발간을 해서 각급학교에 보급을 하고서 교과관련지도를 하도록 지시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94학년도 국민정신교육계획에 첨부 선비정신 지도자료를 충분히 관련해서 교과에 학습지도하고 학교행사나 혼화가 있을때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정신 지도자료 활용여부는 장학활동시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자료가 매우 잘되었다고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이상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농협쌀 청결미 구입 사용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급식비 산출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비는 국고에서 일식당 농촌형은 200원, 벽지형은 6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액은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영양가 기준령에 의

거 급식하고 영양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 식단을 짜서 학교급식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식품비를 산출하고 결정을 하고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급식학교에 공급되는 쌀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 부담액등을 고려해서 정부의 우리쌀 소비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부방출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5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용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정부미는 현재 93년도 이전의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청결미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3월 18일 고등학교장 회의시에 고등학교별 대학진학을 순위표를 배포해서 학교장들의 불평이 있었다."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이 21세기의 무한 경쟁에

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경영을 교육목표나 교육시책 구현과 학교경영의 종합평가제방안을 배부한 중, 일부 대입상황도 학교경영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이는 국제화·세계화에 대처할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선진화 경영자료제공의 의미일 뿐이고 다만 학교경영에 참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진학 실적이 고무줄 통계 운운한 보도에 대하여는 해당 4개교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 이상일위원, 이재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영평가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은 학교운영종합평가제입니다.

형식적인 장학지도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육연구나 교육개발분야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이러한 종합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 쓸모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국제화·개방화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평가방법과 기준은 협동장학, 확인장학을 통하여 종합적인 학교경영을 통하여 교육시책 구현, 교육개혁실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진로교육, 학교시설관리, 학습환경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 등 50개 항목으로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경영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처리는 교육의 질적수준이 향상되도록 우수사례는 일반화하고 미진부문은 집중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학교자치력이 향상되어 국제화·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해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에 대비한 교과 지도와 수학능력고사 목적에 위배된 결과처리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에 대처한 교과 지도는 현행대로가 좋은가, 수능이란 목적과 위반된 결과처리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인데 대학수학능력고사는 전인교육과 고등정신기능평가방법이므로 종래의 강의식·암기식 지도방법을 탈피하여 토론식 탐구학습, 그리고 자료조사 분석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신속한 전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학교의 교과별 성적평가는 각 교과별 성취도 평가에 의한 것이고 수학능력평가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별 평가에 그치고 있다하는 애깁니다.

다음 두번째로 "일부 고등학교의 특정종교 강요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교육기관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정의 종교에 대하여 예배시간을 두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보면은 본도의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신여고에서는 매주 수요일 5교시에 1·2·3학년 전교생에게 예배시간을 두어 한시간씩 지도하고 있고, 1·2·3학년에 주당 한시간씩 종교시간을 두어서 교양과목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광고등학교에서는 2주일에 한 시간씩 1학년 학생에 대하여 예배시간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학년 교양선택은 9개반 중에 7개반이 종교과목을 선택하고 2개반이 철학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신여고나 세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배시간에는 학생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를 의무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신여고의 교양선택과목을 종교외에 다른 과목으로 선택케하여 복수과목으로 이수토록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회교육확대를 위한 학교 개방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충북교육발전 장기계획 179쪽에 학교개방화에 대한 추진내용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회교육확대를 위한 학교개방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장개방은 학교운동장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중개방하고 있으며, 93년도 개방 및 이용실적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별 연평균 약 290을 개방을 했고, 1일 3시간 정도를 개방하고 1일 이용자는 평균 50명 정도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도서실 각종 시청각

기재 등 기타 학교시설물을 청소년이나 성인교육 또는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규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항시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자료를 활용하며 지역사회 인사를 초청, 강연회를 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의 가치관확립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효과를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협동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중에 저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7항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사업입니다.

그 주요실천사업은 학교내외 폭력일소, 학교주변 유해업소정비 그리고 학생보호 국민운동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주변위해환

경정화추진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합동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역시 교육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청, 경찰청, 검찰청, 청소년관련 각종단체 등과 협조해서 각 단위과제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학교주변 폭력일소를 위해서 학생상대 금품갈취근절과 교내 불량씨클의 조직을 파악해서 조기에 해체토록 하고, 한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학교시 또는 학교 자율학습시간 뒤늦게 가는 이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학생보호에 적극적으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하기위하여 유해대상업소의 조기이전 및 폐쇄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에서는 34개 업소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유해업

소의 인·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학교주변유해업소의 단속을 강화하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학생보호 범국민운동전개를 위하여 학생보호활동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또 시민단체를 회합을 거쳐서 홍보를 하고 반상회등에 게재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만은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과과정과 연계지도를 하며 주로 생활교육차원에서 10대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풍교육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계획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학교자문위원회는 94년도 부터 교육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학교교육과 사회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룩해보려는 의도에서 실시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기능이나 운영 등에 관한 시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등학교 입시전형제도의 확정계획은 어떤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제도는 교육의 국가경쟁력 약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고, 사학의 자율·독자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평준화제도의 입시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94년 10월 말쯤 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추진중에 있는 우리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보류해달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현행대로 고입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충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과학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과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학과 수업을 실험실습 및 탐구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학교과학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5개교가 개관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보유기재를 이관하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컴퓨터기재도 이관을 하고 당해학교 과학실험실습 보유기자재 등을 이전해서 정리정돈을 완전히 이룩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당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학교 과학실험실습 및 컴퓨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고 교원연수의 장으로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 교원연수는 주로 과학·컴퓨터 일반 연수가 되겠습니다.

각종 과학교육행사 및 교과연구회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이고, 과학 및 컴퓨터 경진대회의 대회장으로도 활용될 것이고, 인근학교의 과학실험실습 및 컴퓨터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의 극대화를 기할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군내 학교간에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교통이 편리하여 크게 우려되는 바는 적다고 보고 있고, 아직 개원초라서 운영상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현장실습기간의 생활지도계획은 어떻게 돼있느냐?" 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장실습 실시전에 직업윤리 및 학

생생활태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업체에 철저한 생활지도와 안전지도를 의뢰하고 문제발생시에는 신속한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습기간중에 2·3차에 걸쳐서 학교에서는 방문지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대학본고사 실시 발표이후에 고액과외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학교교육상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액과외는 교육정상화의 차원에서 엄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중등장학과에서 공문을 내서 불법과외의 감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각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유관기관인 충북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불법과외를 단속하고 있으며, 또 도  
교육청과 11개 지역 교육청에서도  
역시 불법과외 신고처를 설치해서 주  
민의 전화신고 서신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 집중단속반을 수시로  
편성을 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93년에는 고발건이 2건이 있  
었고 신고가 1건있어가지고 엄중경고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각 학교별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불법과  
외를 근절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과외가 있을 시는  
즉시 유관기관에 보고해서 사법조치  
하고 있음을 각성시킨 결과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등교사의 자질과 품위에  
대하여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서 진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느  
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두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  
다.

지난 2월 26일 11시경에 청주시 내  
덕 1동 동원순대집 앞에서 ○○○○

중학교의 가해자 ○○○교사가 피해  
자 동교 ○○○교사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원 4명이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가해자와 피  
해자 상호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에  
가해자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휴  
대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서 상처를 입힌 사건인데, 교사가 이  
칼을 휴대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  
러운 일이지만 이분이 손재주가 좋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리용으로 소지하고 다니고 고장이  
있을 때에는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에 송치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되는 대로 통보가 오  
면은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입니다.

두번째 사건은 지난 2월 23일 역시  
11시경에 제천시 중앙동 주택은행 앞  
에서 ○○○○고등학교의 가해자 ○  
○○ 교사가 피해자 같은 학교의 ○  
○○교사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습  
니다.

이 사건 개요는 교직원 인사발령때 송별연이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선배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2주정도의 상처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거는 엇그제 3월 21일 학교로부터 기소유예처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적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문고등학교의 비리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참 국민의 사표가 될 교사가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데 대해서는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학습 전면폐지 이후의 실천상황과 보충수업의 희망학생, 희망교과 실시에 대한 실천상황이 어떠한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질

문은 상당히 여러요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은 고등학교 3학년 외에는 일체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가 부득이 가정학습 여건이 부실한 그런 학생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보충수업지침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희망학생수와 희망교과에 따른 지도교사의 부족문제로 보충수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학교에서는 일부교과를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대로 희망교과, 희망학생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수업비 징수유형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보충수업비는 지역별로 교장협의회에 의해서 보충수업의 시간, 그리고 수당 이런 것

들을 지역간 실정에 따라서 협의·결정하고, 학교장은 거기에 학교실정을 감안해서 보충수업시간이나 수당에 대한 결정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충수업기간이나 시간, 이런 거에 학교간 차이때문에 학교간에 징수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계보충수업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학교는 기간을 더 길게 하고 또 수업량도 많게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학교는 좀 덜하는 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휴가중에 보충수업일수와 시간수는 학교장 재량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학교장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상된 육성회비에서 보충수업비의 관리비를 지출할 여유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학부모의 보충수업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뭐 잘하시겠습니까만 보충수업비를 육성회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수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보충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보충수업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육성회비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충수업비는 희망자를 위한 지출일 수 밖에 없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는 보충수업비를 1월, 어떤 학교에서는 6개월분을 1회에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말씀드리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서 학교장 협의회에서 의견을 교환해서 지역실정과 학교실정을 감안해서 징수운영하는 것입니다만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이 육성회 운영차원에서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무분별하게



학부형 부담이 일시에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임 등 비수업자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의 답변입니다.

보충수업 비참가교사에 대한 수당지급이 부담함은 본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아직도 대개 학교에서 수업 비참가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수업비는 엄격히 관리수당에 있어서는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그리고 서무보조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역시 지급 말씀드린 대로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에게 약간의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설학원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설학원의 학원마다 그 수강료가 2만원 내지 10만원까지 천대만 별한 차이가 많은데 수강료의 책정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

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의 책정기준은 학원의 등록·인가신청시 학원의 설립경영자가 제출한 수강료신고 금액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학원의 설립규모, 시설설비현황, 정원, 교습내용, 일일교습시간 및 인근관련학원 수강료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수리하고 있으며, 등록인가후에는 매년 물가정책에 따른 일정 인상율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신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학원수강료가 1인 10만원 이상인 학원에 대한 고액책정사유를 살펴 말씀드리면 아주항공학원이 있는데, 여기는 시설설비와 설비운영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강사의 인건비가 높고 수강생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미술학원이 있는데 이는 입시 미술교육을 위한 실기 전문학원으로 교습과목이 소묘, 수채화, 디자인, 정물묘사, 조소, 이론 등 여러 과목이고, 교습시간도 1일 3시간씩 수강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설학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요사이 교육부에서 학원법 개정을 추진중인 바, 설립기준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여론이 있어 일부 속셈학원에서 고액과외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실 단속 예를 들면 모속셈학원에 대하여는 본청 사회교육계 직원 4명이 94년 3월 18일 19시 40분경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 13명에게 영어교습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94년 3월 21일 청주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학원 단속에 대하여는 청주교육청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감의 교육발전과 학력제

고에 관한 간담회때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사는 스스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교사의 품위유지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품성과 자질향상에 힘쓰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능력이 부족한 교사에 대하여는 항상 학문의 연찬과 교육방법을 탐구 연마하며 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만약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질을 구비하지 못하고 책임과 능력을 다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경고성있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답변 누락부분 없죠?

그러면은 보충질의 중등교육국소관 보충질의를 발언순서에 의해서 하시죠.

이상일위원 먼저 하세요.

● 부의장 이상일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어학실 설치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도내 인문계고등학교가 4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42개입니다.

● 부의장 이상일

그런데 15개교 밖에 설치가 안됐다면 1/3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학교육이 이렇게 소중한 거를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렇게 설치가 미진한 이유는 물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겠지만, 타시도에 보면은 획기적으로 어학실 설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설치 안된 학교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어느해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어학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산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앞으로 전적으로 어학

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단기간내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됐습니까? 이상일 위원

(이상일위원 "예"하고 대답)

예, 이재희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 이재희 위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94년도는 '신뢰받는 교육의 해'다 이렇게 저 타이틀을 내걸으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문보도에 대학진학실적 고무줄보고 이런 타이틀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문에 났다고 민감하게 뭐 신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 뭐 굽히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신문의 보도에 이 공익성을 가진 신문에 보도될 뻔 이 기자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사중이라고 해서 뭐 잘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

실 이런 거는 엄격히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신문대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면은 아주 응분조치를 하시고, 이 다음 회기에 좀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인제 과연 참 이러한 그 석차가 순위매기는 것이 참 바람직하나, 우선 교육개혁차원에서 또는 무슨 고교정상화 차원에서 학교장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꼭 입시성적만 가지고 학교순위를 따지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냐하는 문제고, 또 여기에도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는 시지구대로라든지 또는 학교 크고 작은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입학성적 때 커트라인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짝해가지고 참 영광스럽게 제천청풍고등학교, 제원고등학교가 꼴찌다 이겁니다.

이게 대외비라고 하지만 벌써 이게 아주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 선생님들 학교운영에도 도움보다는 오히려 어떤 역효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위권으로 이렇게 그 밀려있는 학교는 본청에서도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학교만 나무라지 말고 좀 그 교사의 자질높은 사람을 배치를 해준다든지 또는 인문고등학교 보조비 뭐 금년에 18학교 그 주도록 돼있는 걸 좀 나눠가지고 조그만 학교도 혜택이 가든지 의욕을 뒀 세워주는 어떤 방안도 강구가 돼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 이 청결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이상하게 제천농협의 제천시내 일부 학교에 급식을 하는 밥공장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 단위농협장이 한번 그 대답을 했는데 "제천농협에는 그 청결미로 밥을 해가지고 또 일본에서 아주 그 밥 그 보온기 이런 걸 수입을 해가지고 아주 기존학교에서 하는 그 밥보다는 월등나게 밥맛이 좋게 공급을 할 거다" 하는 얘긴데, 이 학교에서 인제 그 급식비 산정을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벽지가 600원, 전액지원하는 벽지 600원 기준해가지고

산출하다보니까 되도록싼 값에 공급되는 정부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청결미로 쓴다고 하는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급식지도라든지 또는 우리 국산미의 그 우월성이라든지 또는 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체발육에도 굳이 재고쌀을 먹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양질의 그 청결미를 보급하는 걸 좀 권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그 뭐 답변.....?

우리가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드리겠습니다.

그 진학순위를 알려드린 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가 어느 수준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교의 수준을 좀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알려주고, 금년에 학교운영 종합평가제에 역시 반영이 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이 과민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애기가 될른지 모릅시다마는 어떤 설정된 기준에,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인간이라는 것이, 또 미흡한 경우가 되면은 불만, 갈등 뭐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역시 아까 말씀이 계셨던 옥천지역에서 교육발전 간담회를 하실 때도 공개해서 국민학교 학력수준을 말씀을 드린거는 마 경쟁화, 이런 의미에서 인제 말씀이 계시고 저는 위치를 자기학교의 위치를 좀 아십쇼하는 의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결미에 대해서는 급식비는 학교후원회에서 결정할 따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가를 좋은 식사를 제공하려면은 그 후원회에서 값비싸게 지금 대개 보편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1,200원이 아마 평균적으로 돼있습니다. 한끼당.

1,500원 1,600원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은 값비싸게 좀 양질의 식사를 시키자 이렇게 인제 결의하면은 청결

미를 먹을 수도 있고 식단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보충질문해야겠습니다.

본도의 중등교육국장하면 우리 교육의 중핵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교육관이 내 지금 그 답변을 들으니깐 조금 의심스러운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제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육의 본질성추구라는 대명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성 추구를 하는데 꼭 학교가 입시성적 입학율만 좋으면 그게 좋은 교육을 하고 열심히 했느냐,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을 했는데 또 그런 평가를 해주는 어느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해학교만 갖다가 통보를 해주고 당해학교분만 그 학교에 알려주면 충분할 것을 공개적으로 전체학교를 갖다가 입학율에 의한 등위를 봐서 해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도는 이 교육의 본질성추구와는 거리가 먼 교육관을 가진 행정가들이 있다, 내 이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그간의 병리가 어디있었습니까?

오도된 교육열은 곧 입시교육의 병폐를 낳은 겁니다.

이 입시교육에 병폐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과제예요

이것이 아직도 행정적으로 입시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이것을 각 학교에 공개가 되고 도내가 떠들석하게 만드는데, 이런 방법이 온당했었느냐, 사실상 우리가 불적에 방법이 졸렬해요.

방법이 졸렬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시행착오를 솔직히 인정해가면서 교육의 본질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겠다는 이런 교육관을 가지셔야지 "열심히 하는 학교를 위해서 했다." 그럼 열심히 했다는 건 입학율만 좋으면 교육 열심히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알려준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종합평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하는 지적은 동감을 합니다.

잘못된 걸로 인정합니다.

개별 학교별로 알려주는 것이 교육적이고 타당한 걸로는 인정합니다.

● 의장 김영세

내가 분명히 중등국장한테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어떤 통계자료가 악용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과거 행정의 타성이에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언젠고 우리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통계는 공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

또 우리가 학생들도 성적위주로 성적위주로 해가지고 성적 제일주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는 걸 다 입으로는 떠들면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갔다가 입학생적으로 등위를 봐가지고 공개한

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건 교육의 본질에 어긋난 처사예요. 아주 졸렬한 방법이였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이걸 담당할 사람이 확실히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시인하겠습니다.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김사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에"하고 말함)

지금 현재 1시가 지났는데 아직 보충설명을 저기 할려면 뭐 김광수위원더 여기 이쪽은 하나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점심먹고 합시다.

● 의장 김영세

점심을 지금 우리가 외부에다 맡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거시기하더라도 이 끝나치고 하시죠.

점심 지금 대내에, 대내에 준비가 안됐습니다.

● 김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도 또.....

집행기관들도 저 점심을 안먹고...

● 관리국장 신재철

(좌석에서)

아, 괜찮습니다.

얼른 진행해주시죠.

● 의장 김영세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심 먹고 들어와서 하시겠습니까?

● 김사수 위원

아니 글썄 괜찮겠어요, 진행해도?

(관리국장 좌석에서 "좋습니다" 하고 말함)

● 의장 김영세

관리국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김광수 위원

의장님, 점심중에 오전중에 다해야

하는 것도 없잖아요?

● 의장 김영세

아, 그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주 하는 길에 다 끝  
마치시고 나.....

● 김광수 위원

점심전에 지금 한시도 넘었는데 점  
심전에 다 끝마치려고 할 필요는 없  
잖아요.

● 김응복 위원

하는 길에 다 해치워요.

● 김광수 위원

아니 글썄, 점심전에 오전중에...

● 김응복 위원

밥 한끼 먹고, 점심먹고, 또 들어  
와서 또 뭐.....

● 김광수 위원

아, 또 해야죠.

● 의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  
포합니다.

점심 후에.....

● 김응복 위원

의장님!

● 의장 김영세

예.

● 김응복 위원

이 의사진행관계 때문에 지금 대립  
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의장님 어찌

● 의장 김영세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갔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넘어.....

● 김응복 위원



그러니까 가부간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속개하자는 편도 있고 점심먹고 와서 가부간 결정을 뭔가 공론에 부쳐야 할 게 아닙니까?

● 의장 김영세

그거까지 우리가 공론에 부쳐서 해요. (웃음)

이 저 정회선포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에게 분명히 회의진행에 대한 정회선포권이 있으니깐 그럼 참고적으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어떠세요?

(김광수위원 "정회하자"하고 장충호위원 "이대로 합시다"라고 말함)

나머지 분들 어떠세요?

● 장충호 위원

아, 중요한 문제인데 배 좀 고프면 어떻습니까?

● 김응복 위원

보충질문하신 분이 그거 감안해서 좀 보충질문하세요.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저 조금만 양해를 하세요.

한 30분만 더하면 될 겁니다.

● 김사수 위원

아니, "보충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하라는 얘기는 이젠 좀 지나치십니다.

("잠깐 정회를 하자"는 위원있음)

● 의장 김영세

예,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1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회의진행권은 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보충질문하시는 분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 회기에 답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서면답변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깐 이 점을 참작해서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좀 요점주의로 이 간략한 이런 답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김사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까 답변한 순서대로 하니

까요.

● 김사수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이 평가제에 대해서는 요담에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서 몇가지 좀 질문할 것도 있는데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단지 조금 하나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서운하다고 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거 뭐 평가제에 대한 건 결국은 권한인데 이걸 왜하느냐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하도 평가제를 작년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면 뭔가 알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해드리고 하기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중 등국장님 말씀이 "그 평가의 필요성은 사람다운 사람,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교육적인 효과는 어떠냐 했더니 "세계화·국제화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너

무나 그 서설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저기를 해서 "너희들이 질문을 했으니 답변을 한다" 이러한 그 감을 느껴서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뭔가 좀 알맹이 있고 저기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여기에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저기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럼 오늘은 답변은 필요치 않은거죠?

(김사수위원 "예"하고 대답)

예, 박병해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박병해 위원

몇가지 제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다음 회기 5일전까지만 서면으로 다 좀 보내주시면 그 중에 납득이 되는 건 그만두고 납득이 안되는 건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대부분 요새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경쟁력강화, 무슨 또 개방화문제 이런 문제같은 것은 우선 교육개혁차원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계획도 수립이 돼야 하고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유급제나 능력별 반편성 뭐 이런 문제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서 정말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지진아에 대한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새 오늘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사나 교장들이 알으켰다고 하면은 알으킨데 대한 그 책임은 역시 져야지 않겠느냐, 이 요거에 대한 거 한가지고, 바로세우기 문제같은 것은 판거는 뭐 다 고사하고 학교장이 장학지도라고 하는 문제가 학습지도 질향상이라든가 이런거를 위해서는 이게 아주 사실상 눈에 안보이는 거지만 중추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거부로 인해서 학교장들이 장학지도를 안한다고 하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편하게 잘됐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일부 고등학교에서의 종교관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고등학교에서 입학생들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 그 내용이체가 종교 강요사항이 다분히 섞여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 강력한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개방화 문제는 운동장을 뭐 얼마나 개방했다 뭐 이런 거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국가에서 말하는 것 보다는 훨씬 먼저 우리도에선 좋은 시책을 장기계획에 마련이 돼있습니다.

이 개방화뿐이 아니라 요즘 뭐 영어 조기지도 뭐 이런 문제 등등 해서 국가에서 근심하는 거 훨씬 이전에 우리도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하나도 안 보이고 또 그런 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음

직임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가령 문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있으면은 학부모들이나 일반 사회사람들이 문장을 위해서, 문예활동을 위해서 그 선생님한테 모이도록 또 그 반대로 사회에 그런 인, 우리 학부모 중에 그런 인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양반들 모셔다가 그 양반한테 배우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장래를 본 학생들 교육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개방화문제 이것을 원하는 거지 운동장 뛰 몇명이 와서 했다, 뭐 그거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시고서 사회교육차원이나 또는 특별활동 문제 등등 이런 게 아주 관련깊게 돼있는 것으로 이게 굉장히 크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난 이래 봅니다.

또 마땅히 이런 걸 해야 될 걸로 이래보는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특별활동하고 같이 관련됐다고 하는 문제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감사때 옥천공고, 음성고등학교

등등 해서 고등학교에 특별활동관계 모든 봉사활동문제 이런 점수화를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를 한번 가서 소상히 봤습니다.

이걸 학부모들이 안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이거 앞으로 문젠니다, 이거.

이거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 점수화를 지금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책임 누가 질런지 모르죠. 이거.

이거 좀 세밀하게 해서 장학지도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생활개혁 10대과제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잘못하면은 우리도의 실정을 보면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종결짓고 마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나 산업체나 모든 이런 것이 불법, 부정 일반사회인사도 다 이런 것에 동참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이 교육계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할

걸로 봅니다.

또 판사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육계에서 앞장서서 리더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여러가지 좀 살펴서 이담에 우선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저 다음 회기에 약속한 거 꼭 그대로 이행하세요.

아까 저 이재희위원이 질문한 거 중에도 처벌결과를 다음에 보고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거하고 이 감사수위원 답변, 지금 박병해 위원 답변 다음 회기에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 권혁풍 위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질문했던 건 아닌데 그 학교에서 교과별 평가방법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입시에 수능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고사가 처음 시작될 때 처음에는 상당히 이걸 과연 이게 어느 만큼 될 것이냐고 의심을 가졌습시다라는 실제 실시하다보니까 그 수능고사의 성격이라든가 그 질적인 문제 그 효과도 역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아,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좋게 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입시, 대학입시, 여기에는 수능고사가 엄연히 있는데 "학교에서는 수능고사평가가 없다, 단순한 교과별평가로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수능고사하면 어떤 통합교육인데, 국어면 국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국어, 사회, 또 과학까지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학교에서도 어떤 수능고사 차원에서의 평가방법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학교와 차단이 돼버리고 입시제도와 학교평가와 차단이 된다면, 연계성이 없다면 이 교육적으로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답변 우선 드리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그거 말씀만, 예.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입시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입시에는 수학능력방법에 의해서 출제가 되어서 시험을 과하고 학교에는 교과과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는 교과별 평가방법에 의해서 성적산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입시를 대비해서 학교자체의 교과평가와는 관계없이 진학지도의 평가방법의 수련방법으로 혼련방법으로는 수학능력평가방법에 의해서 일년에 수회씩 공동출제를 해가지고 수학능력방법을 혼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 그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수의 평가는 수학능력방법으로 교과단위별로 창의력

이나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사가 합동으로 국어면 국어에 대해서 출제는 하지만 언어영역, 수리탐구 영역, 영어 이렇게 세가지 영역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그래서 인제 이것은 우리 충북교육청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학교에는 엄연히 그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과별평가를 안할 수가 없고, 또 대학입시나 고등학교입시에는 또 그게 아니다, 그럼 이게 서로가 상치가 되는데 결국 이걸 뭐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물론 수능고사식으로 수시로 평가는 한다고 합시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학생들 성적에는 반영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예"하고 대답)

성적에 반영이 안되는 그냥 연습,

입시연습이지 학생들 실력평가에는 반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뭔가 상치가 된다 할 때는 이거를 갖다 일치시켜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한 것이 그대로 자기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학교에서는 별도로 공부해야, 평가를 하고 또 입시에는 또 별도로 평가를 한다.

이게 어딘가 수궁이 안잡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떻게 연구를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좋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예"하고 대답)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다 됐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아까 그 고등학교입시 제도가 우리 충청북도가 평준화를 없앨거냐, 지속시킬 거냐 하는 것이 벌써 1년여전 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아직도 이것이 정착이 안돼가지고 참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부형이나 교사나 "이게 언제가서 이게 참 정착이 될 것이냐"라고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참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봤던 건데 더구나 며칠 전 신문보니까 "고등학교입시는 중학교의 내신성적만 가지고도 가능하다"하는 그런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내 응시자중에서 합격자, 응시자와 합격자가 아마 즉 탈락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 물론 저 농촌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참 학생들이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하에서 아직도 청주시내가 평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꼭 교육부에서 어떤 전국 일제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거기에 꼭 따라야 되는 것이나, 우리 충청북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소위 말하는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입시를 내신성적만으로 할 수 있다하는 것은 가능한데, 청주시내에 평준화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평준화 지역을 교육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도 평준화지역이 해제되면 완전히 입시방안을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달학교는 내신성적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경합이 심한 데에는 일부 시험, 그리고 일부

내신성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평준화를 해 제시해주지 않는 한은 어렵다하는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지않아 소도시에는 해제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럼 이것을 10월 말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때 가보면 결과를 알게 됩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럼 그때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권혁풍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에 장충호위원 질문하시죠.

● 장충호 위원

장충호위원입니다.

저는 별로 질의도 잘 하지 않고 질의를 해도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은 물론이지만 집행청에서도 좀 배가 고프시고 뭐 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게 아니고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좀 배도 고프보고 또 때도 걸러도 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과학관에 대해서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다음 회기에 서면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여럿이 있는 데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현재 5개 과학관이 개관이 되고 있는데 그 과학관은 당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할 것이니까 잘 될거다 또 그 개관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뭐 이런 것을 아

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심히 아주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아주 거기 보시다시피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듣고자 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할 적에도 그 과학관이 5,6억이라는 큰 자본이 들어가지고 세워진건데 5,6억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교실을 생각해 볼 적에 12교실이나 13교실을 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금액입니다.

우리 단양만 하더라도 지금 급식소니 교실 부족한 게 한 7,8개 되는데 여하튼 이러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학관을 이뤘다면은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그 뜻을 십분이 발휘되도록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엇그저께도 질문할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과학관은 한 지역교육청에 한개씩 시설해가지고 그 교육청산하에는 각 학교에서

공동적으로 이걸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어떤 데 보면 국민학교에, 어떤 데 보면 중학교에 가 있다는 것도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점도 있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그 과학관이 있는 그 학교에 말하자면 전용시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 할 적에 저는 제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이 과학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봤는데 군내 다른 시군은 좀 더 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같은데 2십, 국민학교만 23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6,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 학교에서 과학관을 가서 말하자면 견학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 가서 무슨 실습을 한다고 할 적에 그 접수관계라든지 모든 일정관계도 이걸 미리 사전에 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또 학과도 여러학과

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별로도 좀 어떻게 될 해야 된다, 또는 수용인원이 얼마밖에 안되니까 얼마 안된다 무슨 순번제를 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막연히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게 돼있고 하니까 잘 될거다. 또 개관초니까 아직 부작용도 발견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아주 이 답변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 학교마다 그런 과학관을 다 세워줄 순 없는 거고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듣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미숙해서..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우선 차기까지 가기전에.....

● 장중호 위원

저 가만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고로 드려가지고 이러한 그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진 과학관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교육감의 뜻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실제적인 연구를 좀 하셔서 이 다음 회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까지 답변해주시고,

(중등교육국장 "예"하고 대답)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보충수업 하기도 좀 쑥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워낙 중등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신 사항은 상세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수업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내신성적에 관한 것은 지금 초미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기회가 있을 적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예체능관계는 이것은 그 교사가 주관으로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공정성을 기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신등급이 15등급으로, 15등급이죠?

(중등교육국장 "예"하고 대답)

15등급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것이 큰 학교같은데는 학생 수효가 많으니까 뭐 480명, 뭐 한 500명도 되는 데도 있을 테지요.

이렇게 많고 적은 학교는 뭐 40명 50명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 내신 등급 비율을 등급을 비율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단위로 이렇게 성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그래서 그것이 큰 학교하고 적은 학교, 또는 도시학교하고 지방학교의 이 유·불리(有·不利)가 어떤 것이며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 본고사 관계가 아  
까 고액과외문제로만 말씀을 해주셨  
는데 역시 고액과외가 있으면은 엄중  
히 단속하고 또 철저하게 좀 보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  
은 것은 이 고액과외보다도 본고사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또는 대학  
입학과정으로 봐서 이게 좋으나, 나  
쁘나 그것의 장단점 또 교육가치적인  
면으로 봐서 본고사를 치뤄야 되느냐  
또 그냥 내신성적이나 이런 거 정도  
로 그치고 마는 것이 더 타당하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고사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국장님 그 소견과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금 당장에 안들어  
도 되는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 답변  
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자질 문제 또 품  
위문제 아까 2건이 있어서 그 하나는

지금 계류중이고 하나는 기소유에됐  
다고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교사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또는 이렇게 나타  
난 교사들이 지금 두명만 지적이 됐  
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문  
제가 돼있는 것이지 교육적인 차원에  
서 불 적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거여. 이것을 앞으로도 더 심도있게  
그 여러가지 학사관계라든가 교사들  
의 그 품위문제는 더 좀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보충수업은 이게 지  
침이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은 희망학과, 희망학생에 한해서 보  
충수업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점으로 봐서는 전 학생이 뭐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마 도내  
에 웬만한 학교는 전부 전학생이 하  
고 있는 거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국장님이 어떻게 지금 보  
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일수가 학교마다 학교장에 의해서 다르다, 다르기때문에 보충수업비 징수하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전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수업 납입고지서를 몇군데에 줌 자료를 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만7,000원 보충수업비를 분기로 이렇게 받았고 또 나머지는 다 1학기분을 다 받았어요. 1학기분을.

여기 아주 고지서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거짓말 못하는 거지.

이것이 인제 1학기분을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데는 만7,000원을 분기별로 해서 계산해보니까 3만5,600원 조금 넘고 또 어떤 학교는 보면 월로 계산했습니다.

이 분기하고 1학기 전체하고 인제 다르기 때문에 보니까 4,900원이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를 보면 5,600원 이상 되는 데가 있고, 이렇

게 가지각색입니다. 천태만상이에요.

이게 학교장중심으로 해서 다 맡겨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준치가 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계보충수업은 수입자 부담에 의해서 뭐 경상비는 육성회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전 학생이 다 보충수업에 참가하고 있어도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설학원문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제가 묻질 안할 작정입니다.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사설학원 문제같은 것이 "등록·인가 신청을 할 적에 다 명시가 돼있고, 또는 그것에 의해서 학원비도 받는다면 매년 인제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당국의 어떠한 그 학원비 징수 무슨 지침이나 계획에 의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셈학원 고액과외 단속이라든가 이런데, 속셈학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초·중·고 학생들이 다 가서 배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 속셈은 뒤로 밀려놓고 아마 그 몇군데 그 과외수업을 오히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욱 이런 학원이 탈방법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좀 감독과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그 교사의 그 스스로 교단을 물러나가는 그러한 양심이 있어야지만이 교사가 되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교사가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눌러서 앉아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는 문제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좀 보살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서 좀 안됐습시다마는 옥천여중 문제가 상당히 지방적으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과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먼저 번에 제가 질문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학교자체가 이 서향으로 돼 있어요.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 서향으로 돼있어서 여름철에는 학생이 그 안에서 찜통같이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래도 그냥 그 내수년도 이것만 생각을 하고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러나 학교자체도 이 아마 교실이 보통 25평으로 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여중학교는 교실이 더 적어요.

또 아마 그 전후 얼마 안돼서 이게 진저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학교도 상당히 부실하게 지어져서 낡습니다.

이것 좀 한번 잘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든 전국  
의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  
지금 차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서도 학교의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또  
는 무슨 시설물 이런 것이 어떤 것인  
가 하는 것도 전부 좀 점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답변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 되시  
는 거죠?

● 김광수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답변할 거 몇가지  
는 좀 있는데요.

● 의장 김영세

예, 말씀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첫번째 "그 예체능평가방법의 공정  
성 방안 그게 잘 안돼있다" 라고 얘  
기하셨는데 이거는 그 아까 잠깐 말  
씀드렸습니다만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엄정하게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달하  
면은 거기에 상당한 평점을 주는 걸  
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개

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3년간 누가기록해 나가  
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또 실기  
평가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  
다.

미술이나 체육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누구는 얼마만큼 잘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어느 학생을 편  
애해서 고득점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교사가 주관적  
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어요.

그 등급, 내신등급관계.....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내신 등급은 그 우선 교과성적이  
80%입니다.

그리고 출결성적이 20%, 특별활동  
또 봉사활동, 행동발달상황 그걸 묶  
여가지고 2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길니다만 500점 만점이다 이

럴 때 학과성적을 200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40%를 내신성적 반영, 40%다 하는 이 얘기가 바로 500점에 40%를 곱하면 200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80%는 2·8이 16해서 160점이 교과성적이고 그 다음에 10%, 10%가 200점에 대해서 10%는 20점이죠.

그리고 출결성적, 그게 인제 20점 그 다음에 특별활동.....

● 김광수 위원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 학교단위로 그 내신성적 그 등급이 15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 4백한 5,6십명, 500명이 있는 학교하고.....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학교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15등급이 등급마다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 다음에 서류로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럼 다 되셨습니까?

다른 답변 또 있어요?

● 김광수 위원

다음에 답변 듣죠.

● 의장 김영세

예,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중등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일깨워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수익자부담비라고 했는데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국가재정 이외에 하는 거는 다 수익자부담입니다

수업료도 수익자부담이고 육성회비도 수익자부담인데, 특히나 육성회비는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학부형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학교운영비를 협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보충수업도 지금 획일적으로 전학생을 갖다 부과한 마당에는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보충수업은 육성회비에서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납득이 안되는 얘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 김광수 위원

보충수업의 학교 차이나는 것 같은 것 다음에 좀 서류로라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그 저 원고하니 학교장재량에 의해서 됐다고해서 뭐 할수있다고 했는데 감독기관이 뭐하는겁니까?

지금 청주시만 하더라도 6개월에 41,000원 받는 학교도 있고, 29,000원 받는 학교도 있고 이래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감독기관은 그냥 방임하고 말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감독기관이 조정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촉구하는 거예요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입니다.

이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상문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도내에서도 충주고, 청석고, 충북고를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감사대상교의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으로 민원이 야기하고, 정기 및 공직기강감사에서 교장의 학교경영소홀로 지적된 학교, 찬조금품 모금과 관련된 학부모제보가 있었던 학교, 또 서울지역 명문대에 진학율이 높은 신흥명문고를 대상 선정기준으로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반 편성은 1개반에 7명씩 3개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93년도 전학년 시험출제 문제 및 답안지채점 이기확인 또 실기평가 행동발달 및 특별활동 평가, 교과과정 운영 또 교과별 이수단위, 학생출결

상황, 성적평가내용 컴퓨터출력 또 생활기록부 이기, 실험실습평가, 석차연명부확인, 부당 찬조금품 및 납부금 징수사항 등을 감사대상으로 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경쟁력강화 개방화에 대한 교육계획은?" 해서 세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식개혁, 관행개선, 제도개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94 국가기강확립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8일에 모든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으로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조리 근원으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예방사정활동에 집중진개하고 있으며 부정과 비리소지가 있는 법령제도를 찾아서 정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교

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 세계화에 대처하는 교육실천계획을 수립하여 3월 16일자로 모든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의 개선의 방향과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과제와 내용으로 기본생활습관 및 공동체의식 함양, 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생활개혁추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직업교육철저, 국제교육의 추진, 교원연수의 철저 등 6개과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두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부의장 이상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이 됐는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예"하고 대답)

● 의장 김영세

예, 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소관 나오세요.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재희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공고 설립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공고는 93년 3월 30일날 저희들이 학교설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93년 7월 22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이 확정되어 그 동안에 부지 지반조사가 완료되었고, 설계용역을 작년 11월 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90%의 설계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이 충북기계공고는 착공이 저희가 예정은 약 7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내년도 개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18일에도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각 과에서 과학기술과나 행정과나 재무과, 시설과 관계되는 과에서 다른 거에 우선해서 이 충북기계공고 설립문제는 내년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우선에서 역량을 집중하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별 납입금 징수한도액의 차등과 그 책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은 교육감이 매년 그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그 한도액 내에서 유치원실정에 맞도록 징수를 하도록 돼있으나 85년도부터 운영의 합리화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시 유치원별 신고액을 기준으로 매년 공립유치원 인상율에 준해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시책에 인상율이 조정된 현재는 현재의 그 유치원별 징수금액은 청주시내의 경우 최고가 6만 2,700원에서 최저 3만1,800원으로 차

등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4년도에는 교육부 자율화 지침에 의거 도내 120개 사립유치원에서 징수최고액인 6만2,700원을 징수하고자 했었으나, 정부에서 전년대비 15% 이내로 인상하되 인상시기도 금년 6월 1일 이후로 시행토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립유치원에서는 설립당시 책정금액에서 매년 인상을 억제해 납입금이 현실화 되지 않아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박병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전반에 말씀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주신 거 의식개혁하고 관행개선, 또 제

도 개선이 세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이 다음 회기 5일전까지만 계획서를 시달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한번 보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소관 보충질의.....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이재희 위원

지금 충북공고가 설계용역은 90%가 되고 또 기존에 예산도 다 건축비는 다 서있는데 7월달로 지금 예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 개교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7월이면 8월달에 장마철이고 그러다 보면은 건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번에 우리가 시내에 그 신설학교 몇군데 다녀보니까 참 생각했던 것 보다는 잘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금 .

그것도 3월달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 것도 그런데 차질이 없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좌우간 이 설제도 90%되면 좀 독촉하시고 7월 이전에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세  
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최대한 지금도 저희들이 노력  
을 경주해서 차질이 없도록 교사만이  
라도 해서 내년에 개교는 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집행부서 각 부서에서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점심시간도 걸러가면서까  
지 이렇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  
각합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  
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  
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폐회)

(○○○부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게재  
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1명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  
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별첨 1 )

# 議 事 日 程 ( 案 )

第 36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 臨 時 會 )

1994. 3. 23 - 3. 25 ( 3 日 間 )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4. 3. 23 ( 수 ) 11 : 00 11 : 30	※ 教 育 委 員 會 議 事 會 ( 教 育 委 員 會 室 ) ※ 開 會 式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3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1차 본회의 산회 】 ※ 學 校 參 觀 ( 政 州 關 內 新 設 學 校 )	회 기 3. 23 - 3. 25. ( 3 日 間 )
3. 24 ( 목 )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教 育 行 政 에 關 한 質 問 의 件 【 제2차 본회의 산회 】	
3. 25 ( 금 ) 10:3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教 育 行 政 에 關 한 質 問 의 件 ( 繼 續 )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